



성도의 빛 5
1973

영감의 메시지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장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머리에는 살아 있는 예언자가 계시며 주님은 그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게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지키며, 질서를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고, 택함을 입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십이사도 정원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 선교 부장과 지부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표로 지지하면서 그분들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축복과 개인의 축복은 물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고는 대개는 복음의 율법을 되풀이 하는 것이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우리가 주님의 집에서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권고에 따르면 결국은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해로움 밖엔 돌아 올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남의 흠을 잡거나 교회에서 비활동적이 되거나 계명을 어기게 되며 심지어는 신앙을 잃게 까지 됩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 없이 주시는 주님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극단에 흐르지 않고 흐름의 본류에 따르도록 하라는 권고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

순서

편집자 난	1	
서로 사랑하라	2	앤 얼돈 태너
형제를 따르라	5	앨마 피 버튼
지혜의 말씀, 특별한 사람들의 표시	8	에드윈 비 퍼미지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10	해롤드 비 리
외계로 부터의 경고	13	앤 얼돈 태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왜?	18	매리온 지 롬니
심술쟁이	21	비비안 바틀로뮤
다니엘	24	매리 엘 러스크
친구가 친구에게	26	해롤드 비 리
심심풀이	28	
기쁨	30	리드 스무트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31	브르스 알 맥콩키
한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33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오늘날을 말해주는 구약전서	35	클레온 스카우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	37	렉스 히 피네가
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의 연구가	38	레온 알 하트선
세가지 약속	43	엘 톰 페리
주님께 봉사하려면	43	오 레스리 스톤
질의 응답	44	피더슨
물론 유우머	45	
내외 소식	46	

仁川聖徒 예수그리스도교회
仁川支部
仁川郵遞局私書函 52號

성도의 벗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5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94호
편집겸 발행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벗

1973년 5월호
제9권 제5호

- 대관장단
해롤드 비리
앤 엘돈 태너
매리온 지름니
고문 위원회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교내 연락 책임자
존 이 카, 번역 및 배부 책임자
도일 엘 그란, 교회 잡지 책임자
다니엘 에치 루드로우, 교육 자료 책임자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킴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클리

정 가: 1권 100 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 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성도의 벗

이달에는 대관장단이 지지를 받은 제1차 대회에서 행해진 대관장단의 말씀을 특집으로 실었다. (이 대회 이전인 1972년 8월 멕시코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서도 대관장단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회에서 함께 지지를 받은 신임 총 관리 직원들의 말씀도 이달 호에 실는다.

편지와 요청 사항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잡지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성도의 벗에서 무엇을 바라며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독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특별히 재미있게 보셨으며 또 어떤 기사가 취급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혹시 잘못된 것이 있어 지적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요청이 들어 왔는데도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의 정책과 교리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의 벗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이나 지부장님들은 그러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면담자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문이나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찾아 가야 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지지해야 하며 이미 이룩된 신권 계통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전을 공부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능한한 크게 넓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서로 서신을 교환할 수 있게 독자주소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늘 받아 왔읍니다. 이러한 특별란을 환영할 독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한 끝에 그러한 요청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다음 달 성도의 벗

교회 역대 대관장님들의 생애에 대한 연재 기사는 고든 비링클리 장로가 쓴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생애에 대한 기사로 다음호에 끝을 맺고 휴 비 브라운 장로가 쓴 앤 엘돈 태너 부 대관장님에 대한 기사와 십이사도 정위원회 회장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사도께서 쓰신 매리온 지름니 부 대관장님에 대한 기사도 다음호에 아울러 실읍니다.



나는 오늘의 말씀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던 중, 너무나 많은 불안과 불행을 초래하는 세상의 물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그래서 만일 이러한 세상 사태를 극복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는 두 말씀에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온 세상에 곤경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교리를 받아 들이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구해야 할 축복입니다.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 22 : 36-39)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황금율을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나 나 자신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각자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세주께서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신 이러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론 자녀들 사이에도 사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에서의 예의, 친절, 분별, 공손함의 중요성과 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 하지

말찌니라,” “살인하지 말찌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저절로 지켜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율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성공과 만족과 우정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친구와 이웃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에게서 그들이 지닌 장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들의 약점과 잘못을 찾고 그것을 확대해서 본다면 같은 사람들이라도 한결 나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떠벌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

“내 자신을 먼저 압시다.
나를 알기 위해 노력합시다.
남의 잘못 심히 허물하는
나의 잘못 깨닫고 고칩시다.
우린 자신의 잘못에 얼마나 관

서로 사랑하라

대관장단 메시지

대합니까?

양심의 소리는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 잘못을 남이 저지를 때
우린 얼마나 가혹합니까?
우리는 쉽게 본을 받아
따스한 빛을 내려 줍시다.
먼저 오늘 우리 허물 고치고
내일은 우리 친구 허물 고칩시다”

훌륭한 인격자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말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과장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진실로 사람을 위대
하게 만드는 것은 이웃의 성공과
행복에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에 관한
토론을 할 때 남의 신앙이나 원칙
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의 가족들이 그로 인한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읽거나 들을
때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높고 고상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남을 허물하기를 삼가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
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원리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사사
로이 비난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황금율을 적용할 때 알
아야 할 것은 사랑은 우리가 증오
나 원한을 품는 상태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증오나 원
한은 우리의 영혼을 부식시키며
사랑을 멀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증오나 악감정을 품어 자신을 괴
롭힙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입에
오르 내리는 그 사람을 괴롭히며
때로는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건을

훔치거나 친척이나 친구 혹은 이
웃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생각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그들의 선량한 이름을 도둑
질함으로써 더욱 큰 해를 입히기
도 합니다.

상점의 점원이나 회사의 비서
들, 어떤 클럽이나, 교회 혹은 국
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서로 비
난을 하고 자기의 약점을 작게 보
이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
아 넘기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을 더욱 헐뜯고 약점을 과장해서
떠벌이는 일은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이웃
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
랑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
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
이 우리에게 더하여진다는 것을 알
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부나 사
업계나 어디에서 일하든지 나의
관찰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의
를 구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서 그
와 같은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보
다 더 행복하며, 더욱 일에 성공
하며, 더 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직장에서 더 높이 존경 받으며 그
가 속한 사회나 그의 가족의 행복
과 안녕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한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한 다음
과 같은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
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
님은 인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
는가를 알고 계시며, 그 일은 하
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도 전
적으로 믿는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
이 있으면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 온 사람들,
내가 몸담아 살아 왔던 사회, 내
가 글을 통해 알거나 방문했던 나
라,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 들이고 그
의 계명을 지킬 때 더 큰 행복과
만족과 성공과 안정을 얻게 된다
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불안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나 백성
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모두 빠
짐 없이 이 계명을 일상 생활에
적용한다면 이 같은 세상의 어려
움은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우
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참
다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습
니다.

어른들이 정직하고 참되며 복
음의 원리에 좇아 생활하는 모범
을 보인다면 우리의 청소년인 자
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
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참됨과,
생명과 구원의 계획에 의심을 품
게 하거나 또 우리가 영생을 얻어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치르신 희생을 의심하게
하고서는 만족은 얻을 수 없습니
다. 그 책임은 중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하나님을 구하
고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의롭
게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
다. 생활의 모범을 보여 어떤 청
소년도 그의 부모나, 이웃 어른이
나, 선생님이나 혹은 그와 접촉하
는 사람때문에 비참한 결과나, 불
행이나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선을 위
해 큰 힘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살아 갑시다. ㉞



형제들 따르라

엘마 피 버튼

월 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교회 초창기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가진 한 집회에서 지도자 한분이 여러 형제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언자들이란 주제로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다.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한 그 형제는 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성경, 물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글로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계시를 주시는 분은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이 경전에 따라 계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경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겠습니다.”¹

이 연사가 말을 마치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 영 형제를 돌아 보며 말했다.

“브리감 형제여,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와 글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형제의 견해를 회중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감 영 형제는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와 성경을 집어 들어 보이고는 내려 놓고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도 차례로 집어 들어 보이고는 단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전에 적혀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나 오늘날 성 신권을 소유한 형제가 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브리감 영 형제가 말을 마치자 요셉 형제는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브리감 형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

러분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²

기독교 계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며 계시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구를 잘못 이해한 몇 사람들에게 가서 나온 것이다. 그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 : 18-19)

요한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전을 읽는 사람은 요한의 이 말씀을 계시록에 한하며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이 위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신약전서가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지는 않았었다. 그 책은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후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전서가 되었다. 요한의 말씀은 경전 중에 요한계시록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의해 우리가 인도 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는 성경이나 물몬경이나 교리와 성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외의 계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

브리감 영 대학교 교회사 및 교리담당 교수인 버튼 형제는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관한 많은 기사와 책을 발행한 바 있다. 그는 샤론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1. 대회 보고 1897년 10월 22페이지
2. 같은 책

로는 우리를 24시간 인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한 하나의 운곽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살아 있는 예언자로부터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³

주님은 옛날에 그의 종들에게 그의 말씀을 계시로 주셨으며 오늘날도 그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던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 하를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많은 것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9조)라고 밝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되며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계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계시를 기다린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쳤다고 주장한다면 옛 예언자나 사도들이 받은 계시 이외에 다른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계시에 대한 한 예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나는 선교사 생활을 할 적에 선교부장님과 함께 카테이지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와 그의 형 하이람이 순교한 그 곳이 주는 분위기에 우리는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장님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선교부장님의 다음 이야기를 듣고 한 청년으로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죽자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구에 변화가 있을 때면 언제나 그랬지요. 브리감 영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존 테일러 대관장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역대 대관장님이 세상을 떠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⁴

대관장이 주님의 대표자로 세상에서의 봉사를 마칠 때 성도들은 새로 부름을 받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의지해야 한다. 교회를 관리하는 분에게는 해야 할 어떤 일이 주어지며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신다.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면 구세주께서는 새로운 예언자인 대관장을 통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신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계시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형제들이여, 눈을 들어 이 교회의 대관장을 지켜 보십시오, 만일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말에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예언자를 통해 백성들이 길을 잃어 방황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이 하나님으로 부터 말씀을 받은 그 때부터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까지 혹은 요셉 스미스가 그 앞에 하늘이 열림을 보게 된 때까지 지상에 살아 있는 신권과, 천국에 살아 있는 신권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이 있는 나무, 살아 있는 썸, 살아있는 예지가 필요합니다. 교회나 각 개인이 처해 있는 특별한 환경에 맞는 계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계시로 노아가 방주를 만 들지는 않았습니까. 노아의 계시로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된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집 트를 떠난 것은 이들의 계시에 의해서가 아닙니까. 모든 예언자들에게 그에 필요한 계시를 주신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수... 요한, 요셉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산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⁵

요셉 에프 메릴 장로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훈계로써 형제들을 따르라고 했다 :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길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대관장단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대관장님의 가르침과 충고를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모든 대회에서 우리는 손을 들어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분의 충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행과 사고가 일치하는 것이겠습니까? 대관장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대관장님은 완전무결한 절대자는 아닙니다. 그분은

3. 설교집 9권 324페이지

4.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1961년 4월 19일

5. 밀레니얼 스타 9권 323페이지

완전무결함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신이 맡은 직분에 따라 회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그들이 의무를 다하도록 이르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하는 사람이 대관장님의 훈계에 거역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드려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의심이 날 때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지는 응답을 받을 때 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대관장님의 말씀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안전해질 것입니다.”⁶

울슨 프랫 장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과거에 주신 계시를 외면하는가를 설명하면서 만약 우리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교회의 표준 경전과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살아 계신 예언자이며 선견자이며 계시자가 받은 계시와, 필요한 때에 내리신 교리의 해석,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인도할 새로운 경전과 교리를 믿어야 한다. 남을 허물하고 싶을 때는 조지 큐 캐논이 가르쳐준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죽자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구에 변화가 있을 때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택하셨습니다. 벌이 필요한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책하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굳고 신권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쁘게 말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권능을 탓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그에게서 떠나 갈 것이며 그는 암흑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원들의 어떤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성급히 의문을 나타내거나 잘못으로 판정해서는 안됩니

다.”⁷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여러 형제들이 수차 증거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다.

“목요일 신권 모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한 후에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선교부와 스테이크가 세워지며,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수립되나 그 소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단지 인간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 좌석에 앉아 예언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의 사려깊은 마음과 지혜로운 결정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는 진실로 예언자였다. 그가 새로운 중대한 발표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결정은 옳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란 장엄한 표현으로 끝맺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가 예언자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교회를 회복하신 예언자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의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교통은 끊이지 않았으며, 권능은 지속되었고, 찬란한 빛은 계속 비치고 있다. 주님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 노래이며 천둥과도 같은 호소이다. 거의 약 1세기 반 동안 한번도 주님과 교통이 끊인 적이 없다.”⁸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랜트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늘... ‘형제들이여, 눈을 들어 이 교회의 대관장을 항상 지켜 보십시오. 만일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행하라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말에 따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같은 행동을 보시고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예언자를 통해 그의 백성이 길을 잃어 방황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살아 있는 예언자를 따른다면 그 누구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의 가르침과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살아 있는 예언자들의 말에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주님께에서 택함을 입었고 교회의 회원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지지 받았다. 교회의 회원과 이 지상의 온 인류의 복리를 위해 또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주님은 그를 통하여 계시를 주신다.



7. 복음 진리, 제랄드 엘 뉴퀴스트 편집(솔트레이크시: 시온 서점, 1957년) 278페이지
8. 인스트럭터 1960년 8월 257페이지
9.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 1961년 4월 19일

6. 대회 보고 1941년 4월 51페이지

특별한 사람들의 표시

1973년 5월호

지혜의 말씀

에드윈 비 퍼미지

나는 최근에 귀국하면서 가졌던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의 전강의 율법인 지혜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세상과 구분해 주는 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해 나는 무기 제한 회담에 참석키 위해 스위스의 제네바에 갔

유타 대학교 법학 교수이며 학생 지부 지부장인 퍼미지 박사는 지난 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 제한 회담에 미국 대외 관계 위원회 국제 문제 담당 위원으로 참석했다.

었다. 나는 그곳에서 25개국을 대표하는 대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술이나 커피가 나오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 경우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접을 거절하는 것은 실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종교는 그런 음료를 금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먼저 나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그러한 상

황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나를 초대한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좋은 인상으로 그러한 금지에 대한 이유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곤 했다. 이렇게 되면 대개는 신앙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고 화제는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물몬경, 물론 신앙의 기초 등등에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제네바에서 여러번 있었으며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나 런던이나 코펜하겐 등지로 회담차 갈 때마다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눈 일이 두번 있었는데 그 한번이 모스크바에서 그곳의 유명한 학자들과 가진 대화였다. 두번 다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언제나 물몬의 신학이 주제가 되었으며 초대한 주인은 그 문제에 관해 관심이 커서 그 이야기로 시간을 많이 보낸 후에야 우리가 토론해야 할 주제로 화제를 옮길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물몬경을 꼭 부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정부 관계 일에 종사하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매주에 몇번씩, 그것도 아주 핵심이 되는 문제를 다루게 되니 내가 전에 이해하지 못하던 지혜의 말씀의 기능을 처음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의문도 가져본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었고 그것을 어기고 싶은 유혹을 느껴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원리를 어떤 변명이나 분석이 필요 없는, 확실한 축복이 따르는 건강의 율법으로 필요한 정도까지 합리화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최근의 경험이나 관찰이 나의 이러한 결론에 조금도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나로서는 처음인 이번 관찰을 통해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을 알게 되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셨다. 베드로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한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주님과 성약 아래서 주님의 계획에 있는 특별한 사명을 다해야 하는 이른바 택함 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침례로써 그와 비슷한 성약을 맺고 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신권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의 사명을 담당했다.

베드로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요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

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고 말했다.

고대 이스라엘인과 후일의 기독교인들이 행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분이 꼭 필요했던 것 같다. 이스라엘은 수차례에 걸쳐 바빌론의 속박에서 풀려났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며 세상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로마와 예루살렘의 세속적인 상태를 옛 기독교인들은 바빌론과 소돔의 속됨에 비유했다. 교회 회원들은 세상의 속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명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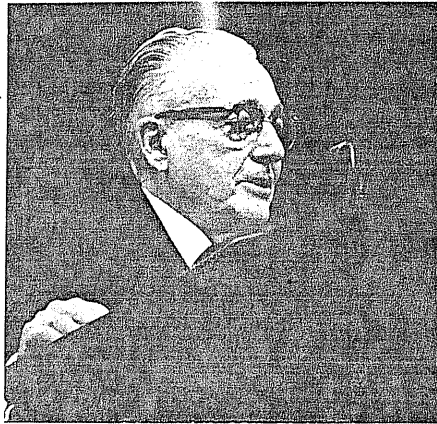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의 요소가 가시지 않는 정도가 가장 좋은 때였고 최악의 경우에는 교회가 하는 일로 인해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되었다. 긴장 혹은 박해의 어느 경우에 처했을 지라도 이스라엘과 이후의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교회의 특별한 기능은 발휘될 수 있었다. 교회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따르는 위험은 박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혹은 교회가 부지불식간에 세상과 영합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데 있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세상과 영합하여 그들을 구분해 주는 특성을 잃는 것을 꾸짖었다.

나는 제베바에서 거의 첫날부터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 나의 종교는 모든 대표들에게 알려졌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영합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나의 종교를 버리는 일이란 있을 수 없었다.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세상에 융합될 수가 없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막아 주는 이 율법은 복음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도약대의 구실을 하였다.

후에 나는 국무성 법률 고문 사무실에 있는 한 젊은 유태인 변호사에게 이같은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음식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방 세계에 융합되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의식하고 남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일인 음식을 드는 것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적인 기능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 즉 복음 전파의 사업을 하기 위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옛 기독교인들에게 부쳐 준 말의 뜻을 더 잘 이해할 것 같다. ㉔



원하옵나니 하나님의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리 대관장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를
받은 성회에서 행한 연설

오 늘 내 생애에서 가장 뜻 깊은 이 순간, 마음속 깊이 느끼는 이 감정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나의 사랑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순간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뜻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엄숙한 집회에서 감격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는 동안, 1835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큰 계시의 중요한 뜻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나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행정에 신권의 질서를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관장단, 혹

은 벨기세택 혹은 교회의 대제사의 회장단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네가지 요건을 지정하시고 그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107 : 22)

첫째,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조직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뜻함)

셋째, 12사도 정원에서 임명되고 성임되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대관장단인 정원회가 구성되어 교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1972년 7월 7일 첫 단계로 12사도가 신전에 모여 성스러운 집회를 가졌으며 여기서 대관장단을 임명했습니다.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요즈음 저는 그 마지막의 요

전인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즉 온 교회의 회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멕시코에서 개최한 훌륭한 레이먼인 성도들의 지역 대회가 우정과 사랑으로 차고 넘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6,000명의 성도들이 강당에 모여 그들의 총 관리 직원들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이 엄숙한 모임에서 나는 형제로서의 참다운 사랑과 결속을 느끼고 표현할 길 없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신회의 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없이 증거하는 영적인 축복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날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그의 전능하신 인도 아래 우리가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뉴욕의 페이엇에서 가진 이와 같은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눈은 너희를 바라보고 있도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교성 38 : 7)

이 성스러운 모임을 갖기 3개월 전에 나는 이제 내가 저야할 막중

한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스러운 신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잠겨 이전에 나와 같은 부름을 받았던 그 진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상화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며칠전 새벽에 나는 나의 서재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가 평소에 대관장과 절친했던 사람들이 쓴 역대 대관장에 대한 조사를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를 소년 시절부터 키워 그에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권능을 부여하고, 신권을 알아 받아 들이게 하고, 말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임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도들이 모여 살던 일리노이주나 미조리주에서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박해를 피해 이들 성도들을 이끌고 이 내륙의 산악지대 꼭대기에 와 새로운 땅을 개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을 우러러 회고해 보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하신 “내가 아는 가장 순결한 사람 중의 한분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의 성스러운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간악함이 전혀 없고, 주님의 영을 의심없이 받아 들이며 영의 빛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르면서” 언제나 굳게 걸어간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께서는 짧은 대관장 재임기간 동안에 특별

한 사명을 받아 희생의 율법을 적용함으로써 성도들을 더욱 튼튼한 세상적인 기초 위에 서게 하였으며 부지불식 간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으로 지게된 교회의 빛을 청산했습니다.

나는 교리적인 문제에서 더욱 명확한 정의를 찾고자 할 때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글과 설교를 찾습니다. 그분의 고상한 모습을 올려다 보면서 평원을 가로 지르며 홀로 된 어머니를 돕는 아홉살된 소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15살 밖에 안된 소년이 삼촌 요셉 스미스와 하늘의 시현에 힘을 입고 마우이 섬에 있는 할레아칼라 기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광경을 그려 보았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신문이 교회를 헐뜯던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를 이끄시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성임을 받아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께서 그의 두 손을 나의 어깨에 얹고 나와 같은 깊은 느낌을 지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도로 나를 불렀을 때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의 뜻에 더 가까와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진이 나를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에는 그가 나를 신전에서 성임하실 때 하시던 영감받은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정과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만인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진을 쳐다보는 동안 만인을 그의 친구로 맞던 그의 온유함이 나에게 전해 오는 듯 합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키가 크시고

인상적인 분으로 나의 진리를 찾는 듯한 강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을 특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나는 짧은 순간에 전에도 그러했듯이 그분께 속함으로써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으시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손상하지 않으시는 내가 사랑하던 예언자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닿아 그가 잠이 드는 그 순간” 그는 의의 지팡이를 내밀며 “네가 나아가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부름에서 내가 드릴 봉사에 대한 오직 참된 기록은 내가 교회안에서나 밖에서 받들고 노력을 바친 분들의 마음과 생애에 적은 기록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던 스미스 대관장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이 부름을 받은 다음 날 내 마음 속에는 1853년 대회에서 당시 사도의 한분이셨던 올슨 하이드 장로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행하신 설교를 간단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이끌어 가기 위해 성임을 받았으면 그는 환란과 시험을 거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그가 그 직을 맡기에 합당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회 앞에서 합당함을 증거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았으면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령과 전능하신이의 권고를 알고, 교회를 알고, 교회가 그를 알아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집, 1권 123페이지)

역대 대관장님들의 생애를 보고 그분들이 그 시대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슨 하이드의 이같은 말씀을 새기며 나는 내 자신과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언자 요셉이 자신에 대한 성격을 분석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와도 흡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높은 산에서 굴러 내리는 큰 바위와도 같다. 내가 순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굴러 내리며 가속되는 힘으로 종교적 미신이나 성직자들의 탐욕이나 변호사, 의사들의 간교, 사주를 받아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과 배심원들, 폭도와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과, 방탕하고 썩어빠진 남녀들의 힘을 입은 위증자들과 부딪칠 때마다 조금씩 돌출부가 깎여 다듬어졌다. 이렇게 해서 나는 부드럽고 잘 다듬어진 전지전능하신이의 화살통에 든 화살이 될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4페이지)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 지금껏 내가 겪어 오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몇가지 경험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 자

신도 높은 산에서 굴러 내리는 바위와 같아서 굴러 내리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로 깎여 다듬어져 전지 전능하신 화살통에 든 화살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 겪어 왔던 일들로 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을 이겨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며, 내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한 경험을 쌓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훌륭한 보좌인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과 매리온 부대관장을 택하면서 예언의 풍성한 은사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도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와 그 밖의 총관리 역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부름을 받은 이튿날 아침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은 천국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이 특별한 우정과 사랑으로 모든 교회의 회원들에게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계의 삼백만 이상의 성도들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온 세상의 성실한 성도들이 확신과 믿음과 기도로 나를 지지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께 기도의 응답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영국으로 가는 선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란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힘도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올슨 에프 휘트니, 히버시 킴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67년] 131페이지)

이러한 사실이 그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무릇 너희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무기는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목소리를 높이면 그는 내가 정한 때에 설복 당하리라” (교성 71:9-10)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구세주의 성스러운 사명과 구세주께서 온 시대를 통해 그러하듯이 오늘날에도 그의 교회의 일에 인도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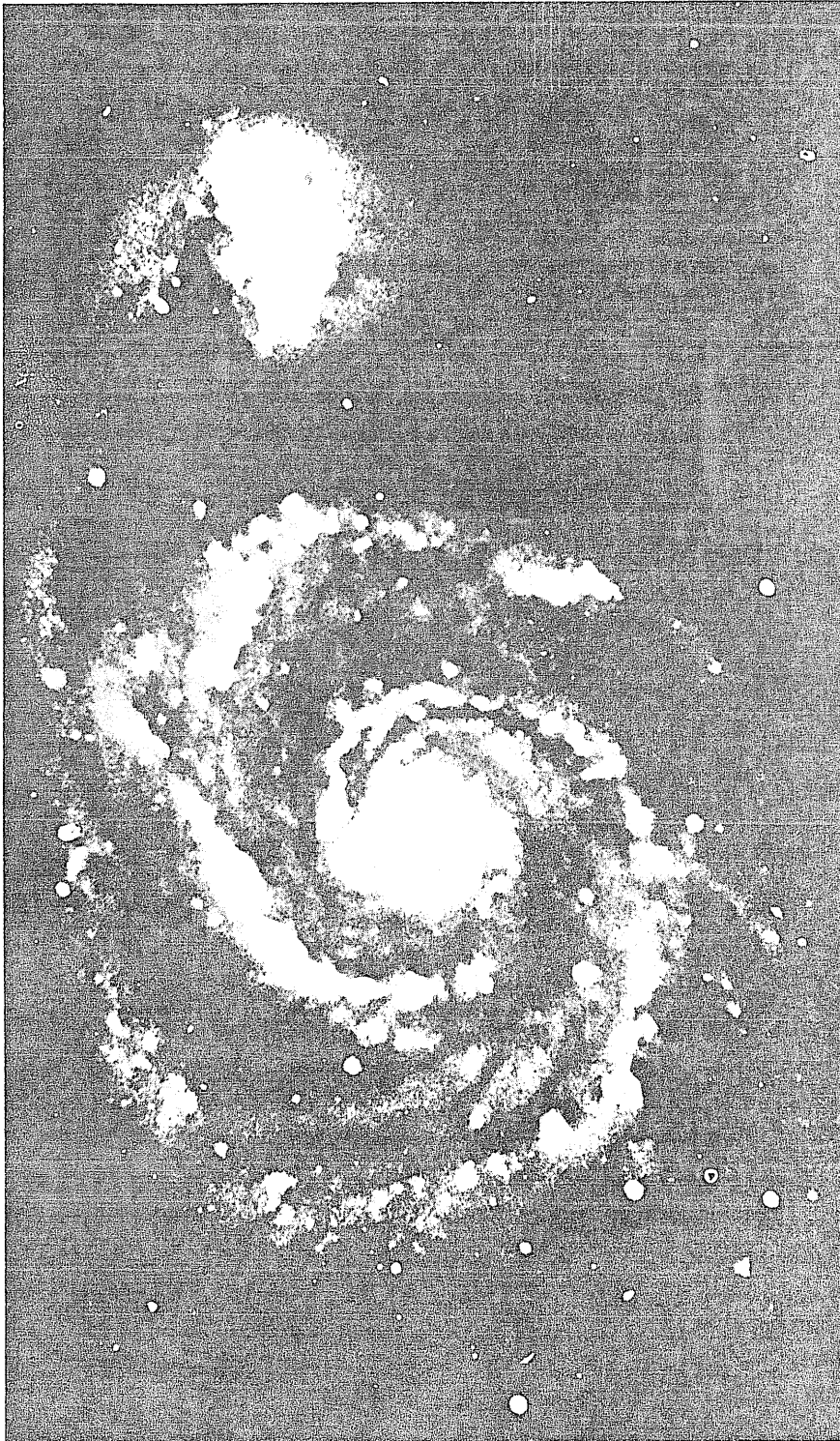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물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교성 62:2, 6)라고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욱 확실한 간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내 영혼의 모든 확신을 다하여 드리며 교회의 모든 회원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나의 축복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외계로 부터의 경고 1973년 5월호

엔 일돈 태너
대관장단 제 1 보좌



세 상의 돌아가는 형세로 인해서 나는 최근에 읽은 신문 사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의 한 천문학자는 지구의 미성숙한 문명이 새로 발견한 자체내의 파괴력 때문에 최초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간이 그 재난을 피하려면 외계에서 무선으로 전해 오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외계의 어느 곳에서는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고도로 발달된 완숙한 문명이 있어 아직 미숙한 지구가 범하고 있는 잘못을 경고해 주려하고 있다고 이 과학자는 믿고 있다.

“이 얼마나 현명한 관찰인가! 수천년 동안 이 세상의 창조자는 그의 세계에서 지구의 사람들이 그의 충고와 지혜를 받아 들이도록 노력해 왔다. 인간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눈과 귀가 어두워 있었다. 지금까지 지구는 외계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아 왔다.”(교회 공보 안내 1970년 9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몸소 모습을 보이시거나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직접적인 계시, 시현, 꿈 혹은 영감을 통하여 전하여졌습니다. 그 최초의 예는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바칠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

“여러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여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

“그 날에 아담에게 성신이 임하셨더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시라. 이르시되, 나는 예나 이제나 태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독생자라, 네가 타락하였으매, 구속을 얻을 것이요, 구속을 얻으려는 인류도 모두 다 그러하리라”(모세 5: 5-9)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담이 계시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모스는 그 증거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3: 7)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기록한 세상적인 역사는 사실로 쉽게 받아들인 반면 나무랄 데 없는 고매한 품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경전에 기록한 성역의 역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예언이 세상적인 역사에서도 이루어지고 분명히 밝혀지나 그러한 사실까지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인간은 역

사적으로 볼 때 그들 시대의 예언자를 받아 들이기를 거부했으며 많은 예언자들은 박해와 조소를 받았으며 죽임까지 당하였습니다.

경전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¹ 외치며 그들의 간악함을 꼬집어 반성케 해 주는 예언자들을 받아 들이지 않는 사실을 애통해 하는 기사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세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며 우리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마 23 : 37-39)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보이려면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신대륙의 옛 예언자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보라 나의 형제들이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는 자에게 권능을 내려 주사 홍해의 물을 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라지게 하여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딛고 그곳을 건넌 다음 물결이 다시 물려 와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을 삼켜 버리게 하신 기사를 읽지 못하였느냐?

“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저에게 주셨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너

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알게 하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며 서로 다투어 말하느냐?

“보라 너희는 내가 전한 말만을 부인한 것이 아니요, 모든 조상들의 말씀과,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받은 모세가 메시아의 강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까지 부인하였으니

“보라 모세만이 이 일을 증거한 것이 아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모두 저희들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도록 이를 증거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아브라함 이후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증거하여 왔음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보라 선지자 지노스도 이를 담대히 증거하여 이로써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음을 아는도다.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때로 오지 아니 하시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음을 부인 하겠느냐?...

“우리의 선조 리하이가 이일을 증거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 갔고...

“너희가 이를 알았으매, 거짓말이 아니고서는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지라, 너희가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받은 증거가 분명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음이요...

그러나 보라 너희는 진리를 부인하며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썩지도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근접할 수도 없는 하늘 나라에 너희의 재물을 지금까지도 쌓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심판의 날에 너희를 정죄할 진노를 쌓는도다.

“너희는 이 시간까지도 살인과 음

행과 간악한 짓을 행하여 영원한 멸망이 임할 시기를 자초하나니, 진실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날이 속히 이르리라“(월 8 : 11-13, 16, 19-22, 24-26)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의 이 사람들처럼 심판의 날에 영원한 파멸을 초래하도록 원한을 쌓고 있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메시지는 영의 자녀로 우리를 낳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의 이익과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며 우리가 성공하여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또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인가를 알고 제시합니다. 그의 예언자들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승영에 이르게 할 삶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자녀들을 바로 이끌고자 하시는 열망은 많은 것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바로가 꿈을 꾀 뒤 번민하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요셉을 불러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라고 이야기한 성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가 꿈에 본 일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꿈 마리의 살찐 암소와 일곱 마리의 여윈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약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는 것이며 일곱 해의 풍년이 있을 다음 일곱 해의 흉년이 닥칠 것임을 경고하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로는 이 해몽을 받아 들이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 모든 잉여 농산물을 거두어 앞으로 닥칠 흉년에 대비케 하였음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성실하였고 영감과 계시를 잘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다른 아들들을 보내 그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동생에게서 곡식을 사 오도록 했을 때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장 참조)

옛날이나 오늘 날이나 이외에도 수많은 계시가 주어졌다는 기록이 있음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과 부활은 성경이나 물문경 속에서 예언자들의 해 주전 수백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리하이, 엘마, 그리고 다른 많은 예언자들도 예언하였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이 일에 관한 계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진 양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한 아기를 그의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언자가 예수를 침례하는 것과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십이사도와 함께 하시는 것과, 병을 고치시는 것, 악귀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니파이는 구세주의 생애의 마지막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며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신 아버지의 독생자가 오시는 날에 육신으로 저들에게 보이실지라, 보라, 저들이 죄로 인하여 그를 거역하며, 마음이 강퍽하고 교만하여 그를 부인하리라.

“보라,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것이나, 무덤에 누인 지 사흘만에 그의 회복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서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의 영육이 그의 예언에 관해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의 날을 보았음이요, 나의 마음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함이라”(니이 25 : 12-13)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약 600년 전에 행해졌으며 이 모든 일이 예언대로 일어났습니다. 신약전

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예언이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전서는 또한 구약전서와 물론경에 기록된 다른 예언들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베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하였고 외계로부터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내려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3-14)란 구절이 나옵니다.”(교회 공보 안내 사설, 1970년 9월 사설)

하나님이 지상에 예언자를 두신 것은 그가 우주에서 사용하는 교통 수단에 의해 인류의 이익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불사 불멸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으며 이를 예수님은 그의 사업이요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희생이 있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해야 하며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또 말일에 우리에게 닥칠 재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에 의해 나타내 보이신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고 그것에 좇아 생활할 때에만 우리는 파멸에서 구원될 수 있습니다.

“옛부터 먼곳으로부터 수없는 많은 말씀들이 전해져 왔으며,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현대에는 요셉 스미스에 의해 성실하게 통변되었습니다. 우주 캡슐이나 비행기나 혹은 로켓트선이 없이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보다 더 훌륭한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천체의 범주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우주 통신과 같은 것이 있어 인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6000년 간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이익과 축복을 위해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같은 책에서)

오늘날 지상에는 예언자가 한 분 계시며 주님은 그 분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개조 9조)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건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그가 주신 삶의 계획과 구원입니다. 인류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 그는 귀 기울였으며 계시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담은 성스러운 기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성경과 현대에 주신 계시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주신 것과 같

은 삶의 계획과 구원을 알려 주었습니다.

14세의 요셉은 당시 그가 속한 사회가 여러 교회의 개종 활동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는 야고보서에서 다음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5-6)

요셉은 지혜가 부족하여 인적이 없는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2:16-17)

요셉은 이 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 일을 친구들과 목사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에게 큰 편견을 갖고 대했으며 그는 박

해와 조소를 받았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마음 속에 왜 저들이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 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요셉 스미스 2:25)

요셉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인도를 구할 때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금판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금판을 시현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요셉은 금판을 받았으니 그 금판에는 하나님과 미대륙의 고대 민족과의 일과 충만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판에 새겨진 글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계시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하나님 이시요 온 나라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물론 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읍니다 ;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

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4-5)

“나는 이러한 것들의 진실함이 나에게 나타내 보였으며 복음은 이 말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신 그 분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분은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길이 열려 있어서 은밀한 기도로써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곳에 계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일은 물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의 현 지도자이신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예언자시며 권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안수 성임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인류의 복지와 교회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의 예언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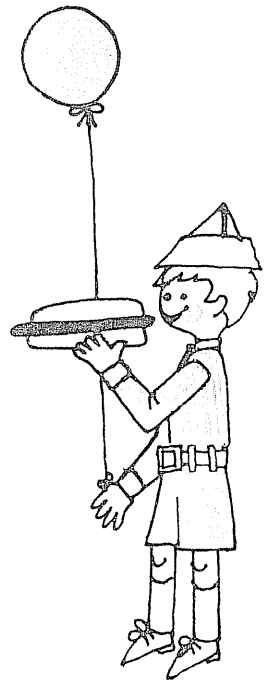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

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계를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니라”(교성 21:4-7)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㉞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왜?

매리온 지름니 대관장단 제2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간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42차 반연차 대회의 시간입니다.

이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위 다른 많은 기독교 종파가 있었으며 또 다른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질문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나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교회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14세의 소년인 요셉 스미스 2세도 그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1820년 봄 그

가 살던 뉴욕주 팔마이라의 교외에서 있었던 종교 부흥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들이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에 휩싸인채 야고보의 훈계와 약속에 힘입어 요셉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에 따라 어린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께 많은 교파 중에 어느 교회가 옳으며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겠는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 속의 소망을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마자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혔으며 놀라운 힘에 압도되어 저항력을 잃고...”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간구하면서 거의 실망하여...나의 몸을 파멸 속에 내어 던지려는 순간 ...

...나의 머리 바로 위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 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 15-18)

이 시현은 그 후 약 10년 뒤에 교회의 조직으로 절정에 달했던 엄숙하고 장엄한 회복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시현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교파에도 속하지 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스미스 2: 19) 모든 교파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랬고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결하고 있었던 필수 불가결한 교회의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진리.
2. 구원의 원리와 의식에 대한 지식.
3. 하나님의 신전.
4. 끊임 없는 계시

첫번째 요소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에 관해서 요셉 스미스는 시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교성 130 : 22)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진리를 요셉 스미스 시대의 교회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 다. 그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진리를 알지도 못했으며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그와 같은 진리를 알고 배웠고 또한 가르쳤던 것입니다. 1830년에야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잊었던 그 진리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참다운 지식의 결핍에서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820년 대에 복음의 기본 원리와 의식이 하늘로부터 소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원리와 의식을 그는 물문경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 물문경을 얻기 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827년 9월 고대 아메리카의 역사가이며 예언자였던 모로나이가 부활하여 요셉에게 나타나 금박 위에 글이 새겨진 금판을 주었으며 요셉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



매리온 지름니
대관장단 제2보좌

으로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고대 아메리카 백성들 간에 배우고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29년에 요셉은 이 번역문을 물문경이란 이름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 예루살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오셔서 그곳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친 바 대로 이들에게는 같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신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에게 그의 복음의 구원의 의식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몸소 보이셨습니다.

요셉이 물문경을 출판할 때는 이미 복음의 제3 필수 요소인 성신권을 부여받았으며, 이로써 그

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29년 5월에 그는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물문경에 기록된 칙령에 관한 구세주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동안 요셉과 그의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는 주님께 칙령에 관해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한 사자가 내려와 그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 나오는 칙령 요한과 동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천사는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칙령을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교성 13)

몇주일 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서 요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사도로 성임하였습니다. (교회 정사 1권 40페이지 참조)

복음의 네번째 필수 요소인 끊임 없는 계시는 신권의 회복과 더불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과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대한 지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가 직접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절정의 때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

있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 성신을 받는다 함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남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 3 : 5)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은 성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역원들에게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온 자를 경전의 말씀에 따라 불과 성신의 침례를 주는 안수례를 베풀며”(교성 20 : 41)라 가르치셨습니다.

신권과 성신의 능력은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입니다.

“...성신의 특별한 임무는 마음을 밝고 교상하게 해주며,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며 선한 일을 하도록 깨우쳐 주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제임스 이 탈메지, 신앙개조, 167페이지)

이 은사가 없는 교회는 마치 전기가 없는 발전소처럼 죽었거나 무능한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복음을 받은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명에 따라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울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시는 여러차례의 계시를 통해서 전해졌으며 교회 조직의 날자와 방식도 계시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여 요셉 스미스 이세는 1830년 4월 6일 뉴

욕주 세베카군 페이에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지상의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왜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또 조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셉 스미스에게 교회를 조직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교회 조직을 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주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니파이인들에 베푼 가르침에서 교회가 그의 이름을 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니파이인들이 예수께 그의 교회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가 되겠느냐? 만일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모세의 교회요,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사람의 교회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내 복음 위에 세워진바 곧 나의 교회라”(니삼 27 : 8)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교회는 (1)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하며, (2) 그의 복음 위에 세

워져야 된다는 두가지 사실을 전해 줍니다.

이 말일에 주어진 이름에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성 115 : 4)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란 이름은 별명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하며 그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두가지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름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계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 몇마디 말씀과 간증을 드리 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검토한 사실과 같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절정의 시대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회복한 일은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자여, 함께 들을지어

비비안 바들로유 글 테드 나가타 그림

필 리버트, 오늘은 너 혼자서 거위를 돌봐야겠다”라고 아버지가 조반을 끝내시며 말씀하셨다. 필리버트는 갑자기 머리카락이 꼰꼰이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의 형 플래비안을 보았다. 플래비안은 눈을 둥그렇게 뜬채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다. 필리버트는 여름 내내 플래비안을 따라 다니며 그들이 사는 말라가시의 마을 아래의 동산 주위에 펼쳐진 추수가 끝난 논에서 거위를 돌봤다. 그러나 언제나 플래비안이 거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 이엉을 더 없어야 하겠는데 플래비안이 오늘 아버지를 도와야 하거든” 하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필리버트는 형의 자랑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았다.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고 인정받는 것은 영광이었다.

물론 거위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필리버트는 생각했다. “넌 아버지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걸 원치 않니?” 플래비안은 아버지가 자리를 뜨시자 팔꿈치로 필리버트를 슬쩍 찌르며 비위를 건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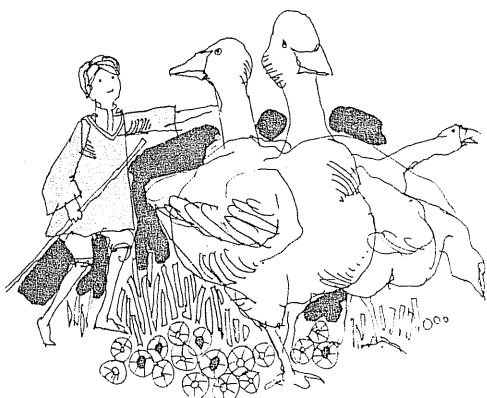
“아버지는 거위를 돌볼 사람으로 나를 뽑으셨어” 필리버트는 용감하게 대답했다. “형이 거위를 먹일 때 쓰던 막대기를 좀 빌려주지 않을래?”

“부수지만 않는다면 써도 좋아. 그 막대기로 심술쟁이를 자주 두들겨주면 그 녀석은 감히 네 옆에도 오지 못할거야” 플래비안이 말했다.

필리버트는 심술쟁이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심술쟁이란 플래비안이 거위 숫놈에게 붙인 이름이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마의 땀을 씻어냈다. 플래비안이 등을 보일 때마다 이 심술쟁이는 플래비안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물어 뜯거나 그의 다리를 물곤 했다. 필리버트는 그 숫거위가 암컷이 있을 때에도 형이 자주 그를 매질하는 것을 보았다. 형은 심술쟁이가 지난 번에 한 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필리버트는 그 막대기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길고 탄탄해 보였다. “잘 쓸게”라고 약속했다. 그는 막대기를 들어 허공에다 대고 몇번 연습으로 휘둘러 보았다. 그런 다음 거위 우리로 가서 문을 열었다. 숫거위는 거만하게 목을 길게 뽑고는 우리에 있는 거위들을 이끌고 나왔다. 필리버트는 거위들이 떼를 지어 나오는 곁에 가만히 서 있었다. 심술쟁이에게 그가 막대기를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껍뻍거리며 먹이를 찾아가는 거위 떼를 뒤쫓아 흙길을 따라갔다.

논에 이르자 거위들은 흩어져서 보드러운 초록빛 햇가지를 찾았다.



필리버트는 심술쟁이가 덤비지 못하도록 막대기를 꼭 쥐고서 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 늙은 숫 거위는 소년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보였다. 거위들은 먹이를 찾아서 한쪽 눈에서 다른 한쪽 눈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필리버트가 보기에 이 심술쟁이는 자기가 마치 목자나 되는 것처럼 거위 떼를 돌보고 있는 듯 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웅웅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필리버트는 숫거위가 그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그의 작은 눈으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도 나처럼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알고 싶은가 보구나”라고 필리버트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빨을 들어내어 웃었다.

필리버트는 비행기가 하늘에 날으는 것 밖에 못 보았지만 비행기를 무척 좋아 했다. 그가 사는 산 마을에는 한번도 비행기가 내려 본 적이 없었다. 필리버트는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말라가시로 온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말라가시 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인도양에 있는 여러 섬들로 된 나라라고 아버지께서 언젠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행기는 아마도 북쪽에 있는 눈과 얼음이 덮인 나라에서 날아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필리버트는 가끔 언젠가 그도 비행기를 타고 큰 대양을 건너서 신기로운 다른 여러 나라를 구경하는 꿈을 그려보곤 했다. 비행기가 사라진 한참 후 까지도 필리버트는 먼 곳에 대한 갖가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가 거위를 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심술쟁이와 다른 거위들이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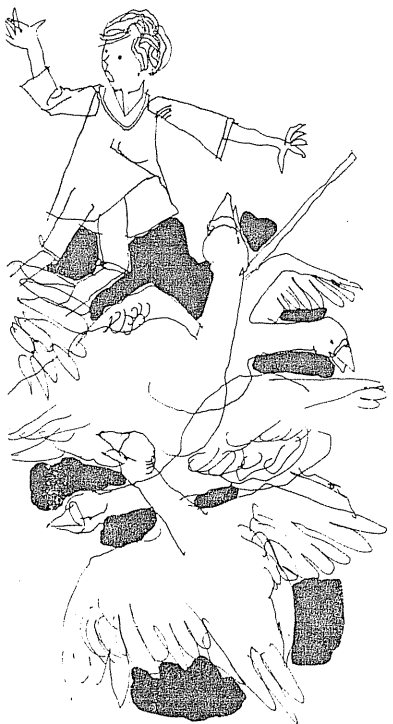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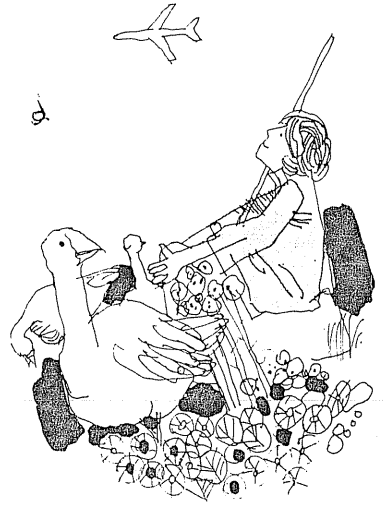
“내가 거위를 지키지 않았구나! 심술쟁이가 다른 거위들을 몰고 도망갔어. 거위를 잃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하며 그는 울기 시작했다.

필리버트는 다른 눈으로 달려 가보았다. 흙벽 아래에 쉬고 있는 거위를 찾았을 때는 거의 거위떼 위에 넘어질 뻔 했다. 거위들은 놀라서 짹짹거리며 큰 소리로 불평을 했다.

“미안해” 필리버트는 심술쟁이에게 사과했다. 그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었다. “넌 거위를 데리고 도망치지 않고 내 대신 거위를 돌보았구나, 고맙다.”

필리버트는 안도의 숨을 쉬고는 개울에서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 키가 큰 풀의 그늘로 들어가 거위 떼를 지켜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옆에다 막대기를 놓고 큰 숫거위가 부리로 깃털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플래비안은 네가 깃털을 가다듬을 때에 너를 괴롭혔지. 난 너를 때리지 않겠어. 넌 임금으로 보이고 싶은 모양이니까 말이야” 필리버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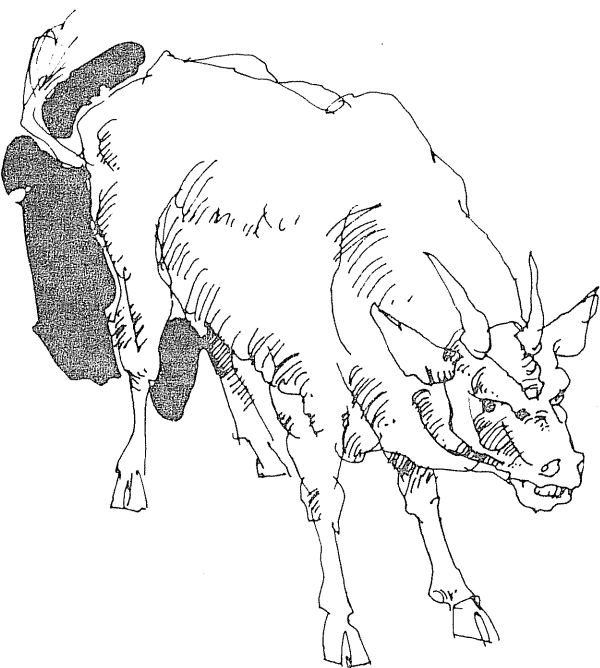


필리버트는 논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올라다 보니 성질이 고약한 흑소 한마리가 초목을 헤치고 오는 것이 보였다. 흑소는 소년을 보자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칠현금의 모양을 한 두 뿔을 흔들어 보였다.

심술쟁이의 길게 뿜는 울음 소리를 듣자 필리버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숫거위가 전에도 이와 같은 두려움에 떠는 울음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흑소와 심술쟁이 중 어느 쪽이 먼저 덤빌 것인가를 판별하지 못하고 필리버트는 너무 겁에 질려 막대기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가 흑소에게서 눈을 떼어 숫거위를 보니 이 심술쟁이는 목을 곧추 세우고 날개를 펴고 흑소를 향해 돌진하지 않는가!

흑소는 숫거위를 보고 땅을 발로 긁어 파는 동작을 중지했다. 숫거위는 그의 발로 붉은 땅을 뒤로 차고 날개로 바람을 치며 눈을 가로질러 돌진하고 있었다. 흑소는 뒤로 돌아 초목을 가로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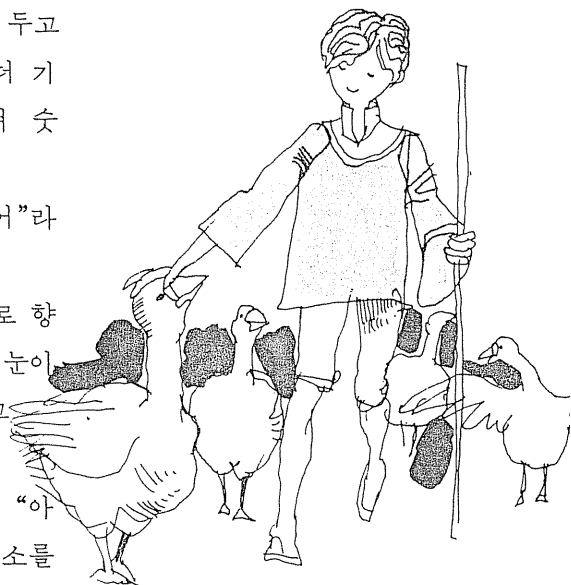
필리버트는 일어나서 개간지를 가로 질러 뛰어가 심술쟁이가 흑소를 뒤쫓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발견한 그 큰 사실로 필리버트는 기쁨에 넘쳤다. 심술쟁이는 심술쟁이가 아니라 친구였다.

흑소가 산 아래로 멀리 사라졌을 때 숫거위는 뒤쫓는 일을 그만 두고 도로 거위들이 있는 곳을 향해 아장 아장 걸어 왔다. 필리버트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는 달려 나가 그의 팔로 숫거위를 껴안았으며 숫거위는 머리를 필리버트의 가슴에 묻었다.

“친구가, 오직 한 친구가 무서운 흑소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어”라고 필리버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저녁 필리버트는 그의 친구와 함께 거위 떼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이들이 플래비안의 앞을 지나가자 플래비안은 놀라움으로 눈이 둥그래졌다. 문 옆에서 필리버트는 발걸음을 멈추고 거위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조심해! 심술쟁이가 너에게 덤빌거야!” 플래비안이 소리쳤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필리버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하면서 미소를 띄웠다. “오늘 나는 우리 숫거위의 이름을 친구로 바꾸기로 했어”



다니엘

매리 엘 러스크 글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무서운 꿈에서 깨어났다. 이튿날 아침 일찍 왕은 그의 모든 현자들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뜻을 알 길이 없구나” 하며 말했다.

“왕께서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말씀드리겠나이다”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무슨 꿈인지를 잊었노라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그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고 왕은 설명했다.

그들이 왕의 청을 행할 수 없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진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다니엘과 그의 벗들은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종이 왕의 명을 시행하러 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다. 다니엘은 왕의 종을 설득시켜 그가 왕과 이야기를 할 때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다니엘과 그의 벗들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뜻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했다. 그날 밤 왕의 꿈이 시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어 보였다. 다니엘은 하늘 아버지를 찬송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 그 뒤에 느부갓네살에게 아무 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있어 버린 꿈과 그 뜻을 알 수 없으되 그 꿈과 뜻

이 다니엘에게 보인 것은 왕으로 하여금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말했다.

다니엘의 꿈과 그 뜻을 이야기하자 왕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또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의 사업은 참되도다.”

후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더러 바빌론 전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의 장으로 삼았다.

느부갓네살이 죽자 바빌론시는 다리오 왕의 통치 하에 들어 갔으며 다리오 왕은 방백 일백 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고 성품이 온유한지라 그를 첫 총리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다른 방백들이 시기하게 되었고 화가 치밀게 되어 그들은 함께 다니엘을 현 위치에서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다니엘에게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왕께 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방백이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약점이나 그가 하는 일 가운데서 잘못 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자 몇몇 방백들은 다니엘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를 헐뜯을 길을 찾아 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방백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 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두고서 신이나 사람에게 청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자도 앞으로 30일 이내에 왕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감

사나 찬송을 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에 서명을 하게 했다. 왕은 이 법이 자기를 공경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서명했다.

다 음날 새벽에도 다니엘은 그의 집에서 평소와 같이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질투에 찬 방백들이 와 그를 잡아 왕 앞에 데려 갔다. 그들은 임금에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고했다. “왕께서 서명하신 법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은 거듭 이야기했다.

왕은 슬프지만 자기가 서명한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다니엘을 사랑하였으며 또 방백들의 말을 들어 그러한 법에 서명한 자신이 미웠지만 이미 서명한 법을 바꿀 수는 없었다.

다니엘이 사자 굴로 끌려 갈 때 왕은 그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했다.

다니엘이 들어간 굴 입구를 돌로 막고 봉하였다.

왕은 그 집행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와 기악을 폐하고 음식을 금했다. 그는 한 밤을 걱정 속에 보냈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그는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을 불렀다.

다 니엘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은 기뻐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조서를 내리며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전져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라 하였다. 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두 세 명의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아 집이 서있는 산 근처에서 천둥이 크게 울리며 자연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열린 창 너머로 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천둥이 또 한번 크게 울리더니 잇달아 번개 불이 번쩍였으며 벼락이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남하에서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밀어부쳐 나는 문 밖으로 나가 넘어지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불 기둥이 부엌 난로의 굴뚝을 타고 내려 와 열린 문을 통해 나가더니 집 앞에서 있는 큰 나무를 쳐서 조각을 내었다. 만약 내가 그 문에 그대로 서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순간적인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생명이 어머니의 순간적이며 직감적 행동으로 구출되었다는 것 뿐이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옛집에서 있는 그 큰 나무의 흠 자국을 보았을 때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저의 어머니와 다른 많은 어진 어머니들에게 그 같은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위

험하고 필요한 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 시절에 어머니는 직감으로 위급한 때를 알아 낸 일이 수 없이 많았다. 어느 폭풍이 몰아치는 날 밤에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나를 찾으러 나가 보라고 채근하셔서 말에서 떨어져 반쯤 얼어 붙은 진흙 연못에 빠져 위험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두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는 하늘이 주신 은사가 있다. 주님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빛 혹은 진리의 빛이라고 하셨다. 어린 시절일지라도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어느 것이 옳고 주님의 것

이며 어느 것이 그르며 세상적인 것인가를 구별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 혹은 하나님의 영의 소리라 말한다.

침례를 받은 후 장로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또하나의 은사인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된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는



친구가 친구에게

해럴드 비 리대관장

우리를 가르쳐 모든 진리를 알게 하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닥칠 일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람이 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 주님의 위대한 은사를 통해, 자녀를 기르고 주님의 명대로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큰 은사를 받도록 준비하

을 갖게 되었다면 이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현명한 부모들로부터 합당한 교육을 받은 것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성실한 어머니는 우리가 흔히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들이 신전의 부름에 바쁘고



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부모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 받은 하늘이 주신 가르침이나 경고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이 우리 맘 속에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혹은 직관이라 부를 수 있다. 부모는 올바른 원리로 가르치고 훈련할 책임을 지고 있다.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성숙한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안정되고 책임감

가족을 부양하기에 바쁘며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밀한 면에까지 자녀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축복과 함께 이같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고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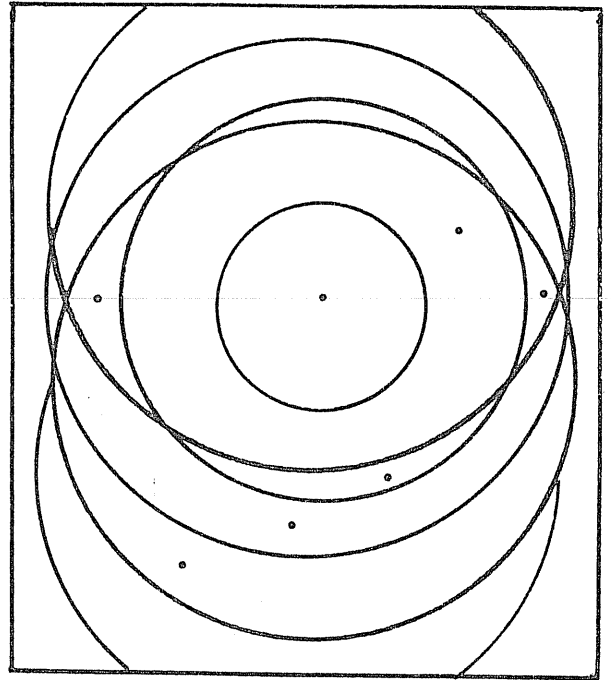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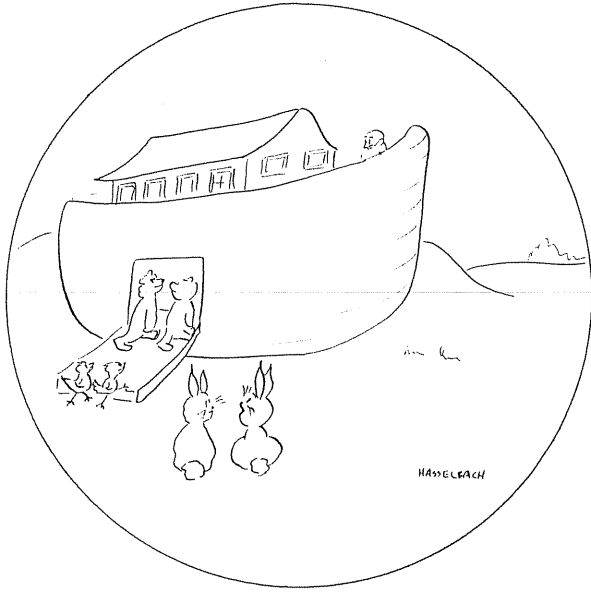
심심풀이

색칠 하기

바이올렛 엠 로버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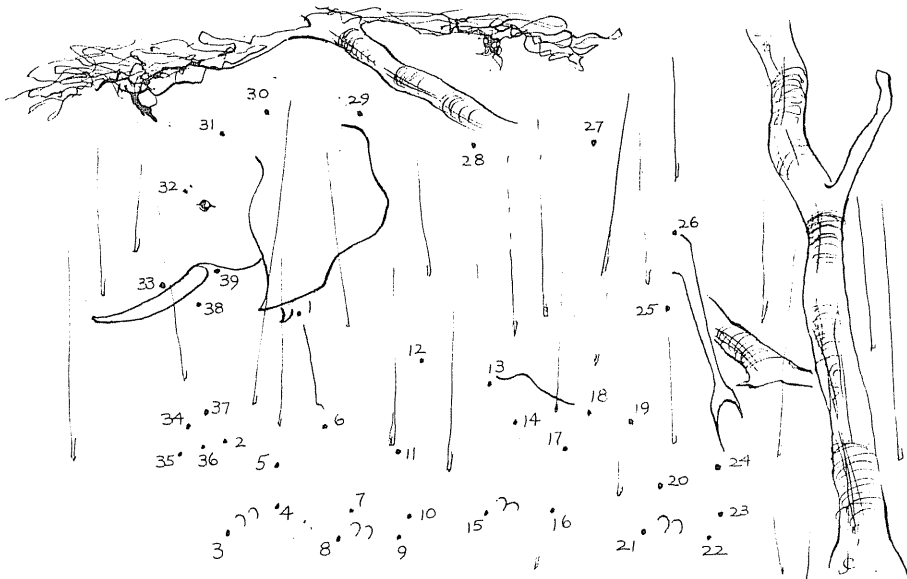
빌리는 그것을 던지고
 보비는 그것을 받고
 바디는 그것을 땅에 튀긴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점을 포함하는 각 공간을
 빨강 크레용으로 칠하십시오.



점 잇기 존 코너

점을 연결하여 누가 비를 피하려 하는지 알아보시오.



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고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 사는 주민들아, 나 주는 이 일을 기꺼이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포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곧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리라”(교성1:1-2, 34-36)

이 말씀이 있는지 1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지상에는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악마는 그의 권세를 통치하며 주님은 그의 성도를 다스립니다. “세상에 심판하려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과 국가가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한다면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날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각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교성 45:26, 33)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닥아올 재난을 미리 아

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재난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의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가 조직된 약 1년 반 후에 우리가 현재 처한 곤경의 이유를 이와 같이 풀이하셨습니다 ;

“이는 저들 [세상 사람들을 말함]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때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 (교성1:15-18)

세상에 전파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지상에 그의 교회를 다시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회복은 열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

니할 것이요…”(다니엘 2:44)라고 한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또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곳으로 올려갈 것이라”라고 한 미가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계 14:6-7) 라 한 요한이 본 시련이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 온 “만유의 회복”입니다. (행 3:21 참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덧붙여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한 나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을 여러분 모두에게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과 회복된 진리에 대해 알아 겸손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성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㉔

기쁨

주의 : 이 기사는 1900년부터 194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리드 스무트 장로가 1904년 5월 25일 유타주 프로보에서 행한 말씀으로 한번도 글로 발표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인생 여로에는 기쁨과 슬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집인데도 한집은 덧문을 닫고 있고 옆집의 커튼은 춤추는 사람들의 옷깃에 닿아 휘날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물러 나오는데 그 이웃집에서는 장례 행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쁨과 한숨은 일상 생활의 거울을 밝게도 하며 어둡게도 해 줍니다. 눈물과 웃음은 쌍둥이입니다. 마치 두 아이가 한 침대에서 자는데 한 아이가 일어나 보채면 다른 아이도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시련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조화를 끌어 내기 위해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한 그 열쇠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기쁨과 즐거움의 가락일 뿐만 아니라 슬픔과 비애의 선율이기도 합니다.

중단되지 않는 기쁨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햇빛은 산정을 종일토록 비추어 주며, 가장 늦게까지 가장 오래도록 노을이 그 곳에 걸려 있지만 그 산정은 황폐한데 반해 그 아래의 계곡은 푸르고 비옥합니다. 그들이 없이 햇빛이 내려 쬐거나 슬픔이 없고 행복만이 있거나, 고통은 없고 기쁨만이 있는 삶은 전혀 삶이 아니며 적어도 인생살이는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팽팽히 당겨진 뜨게실과도 같습니다. 그 삶은 기쁨과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쁨을 더욱 기쁘게 느끼는 것은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곤경을 그저 적당히 넘기지 마십시오. 철저히 그 어려움에 맞서 봅시다. 아마 그 곤경은 여러분의 집 앞에는 감히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이 닥치면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불행은 곧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그를 즐겁게 할 동반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도 무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일 나무를 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며 인간의 마음에도 “꽃을 피워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피는 큰 꽃은 고난 속에서 자란 꽃입니다. 태양이 구름을 찬란한 휘장으로 바꾸고 불태워 현란한 빛을 발하게 하며, 찬란한 의상으로 단장시키며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기록하는 것 같이, 빛을 발하는 마음도 때로는 슬픔을 희생으로 덮고, 모든 암흑을 날려 보내며, 두려움을 주려고 베풀어 모인 것 같은 곤경은 승리자의 발자국을 따르는 개선의 행진처럼 모입니다.

가정의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 끝 없는 신선함이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꿉 동무와 함께 집을 나와 산과 들로 쏘다니던 아이가 이제 그 놀이에 지치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가슴에 그의 피곤한 머리를 파묻고 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작은 책임과 기쁨에 지쳤을 때 우리 인생의 들과 산을 넘어 성실한 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의 문으로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브리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주님께서 나와 가족과 세상에 있는 모든 성실한 성도에게 풍족한 축복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영예로운 사업의 진실됨과 거룩함을 간증하는데 성신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이 모임에 임재한 빛과 진리와 교화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과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성실한 성도들에게 부여하

시는 경이와 영광과 기적인 주님의 영의 은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 현대 계시에서 꼽는 첫째되는 은사가 간증의 은사, 계시의 은사, 이 사업의 진실됨과 거룩함을 알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다른 곳에서는 예언의 영인 예수의 간증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사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 가셨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그를 통해서 충만한 복음이 말일에 회복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이 말일성도 예수 그

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주님의 증인 아래 해롤드 비리 대관장을 머리로 하여 백성들에게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주님께서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도 고대의 성도들이 받은 것과 똑 같은 영예롭고 기이한 은사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우리에게 고대에 주었던 것과 같은 예언과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나는 영원한 복음의 영광과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성 8:2-3)

나는 계시를 받아 왔기 때문에 교회에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의 이름의 증거자로 봉사하며 그가 나타내 주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며, 이러한 교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복음을 가르치며 진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과정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출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된 것이나 이 세상 인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 영원한 영예

를 누릴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
들은 모두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는 것
과 같이 구원의 종교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과거 각 경륜의
시대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나
타내 준 것과 똑 같은 구원의 진
리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의 제도는 사도나
예언자나 의로운 사람에게 구원
의 교리와 진리를 나타내 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진리를 가
르치며 세상에 그것들이 진실함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있으며, 그
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
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간증
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자나 중
들이 항상 진리를 증거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진리의 증거자로
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기
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
데 진행되는 오늘 이 모임에서 하
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관리하도록
부르신 위대한 세 사람 즉 계시
자요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
하며 주님과 늘 가까이 계시는 해롤
드 비리 대관장님과 주님을 사랑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완전함
과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미덕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엔 엘돈 태
너 부대관장님과 영적인 거인이며
의로운 전파자이며 주님을 알고
그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을 지지하고

이 분들의 권고를 들을 수 있고
솔직하게 거수할 수 있고 마음속
깊이 성약을 다짐할 수 있는 특
권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롬니 부대관장님과 나는 같은 가
문의 출신입니다. 내가 이 직분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페드 할아
버지(페류엘 하디슨 레드)가 우리
를 반가이 맞아 주실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가 계신 곳에 갈 수 있도록 합당
하게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도
“나도 그러지”라고 대답하셨습니
다.

이 순간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닌 이 형제들에 관해서 주님께
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나의 교회
의 대관장단으로 내가 택한 자들
이니라. 그들의 말을 따르라.”
“잠시 동안 저들에게 모든 교회의
짐을 지게 하였음이니라...나를 받
아 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파
송한 자 곧...대관장단을 받아들
이는 자니라”(교성 112: 18-20)

나는 온 정성을 다해 교회의 대
관장단을 지지하며 그들이 그의
백성들이나 지상 모든 나라에서
진리를 추구하려는 정직한 사람
들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와
진리의 빛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사업이 진실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교회의 역원을 지
지하고 주님의 영의 권세로 말씀

하시느 리 대관장님의 말씀에 귀
를 기울이며, 주님의 영이 임재한
가운데 이 성스러운 곳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위한 것임을
알며 나는 우리가 모두 이들 위
대한 지도자들과 리 대관장님이
지금까지 살아 오셨고 일해 오셨
고 생명을 바치실 진리와 의의 원
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
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는 모
두 주님의 의식을 이행하는데 힘
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굳게 약속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영예로운 사업의 진실
됨과 거룩함에 대한 산 증거가 되
어, 이로써 홍수처럼 육지를 휩쓸
며 바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지구
를 덮게 하도록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와 나의
가족과 이스라엘 가문의 성실한
자가 모두 진리와 빛 가운데서 걷
고 교회 밖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정, 친분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올 세상에서도 충만한 영과 우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겸손하고 감사
하는 마음으로 계시와 감사의 영
으로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받들어 말씀드립니다.
아멘. ㉔

한 사람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우 여러분. 어제 아침 새로운 교회의 대관장단으로 리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을 지지한 일은 참으로 감격적이고도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나는 그 짧은 순간에 똑 같은 영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내 일생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는 리 대관장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인간의 영혼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생각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수 백번이나 되풀이 해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이는 내가 최대의 존경심을 갖고 있는 총관리 역원인 훌륭한 형제들 가운데 낄 수 있는 부름을 받은 것이 나에게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약점을 아시므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지녀 왔으며,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간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 중에서 가장 약점이 많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나는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폴투갈어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안겨다 준 루스라이트 파우스트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나를 존재할 수 있게 한 일부이므로 아내나 연인 이상의 사람입니다. 나는 또한 내가 가장으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 생애에 자녀들이 언제나 으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이 부름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부친보다 더 훌륭한 부친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의 훌륭한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어머니께서는 지금 텔레비를 보시며 울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다섯 아들을 위해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나는 이 아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생애가 결코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된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까지 과거 22년 동안 나는 변호사였으며 그 때부터 계속 회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나는 어부가 되려 하며 영생의 그물을 던지는 형제들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나 정치 생활에 있어서나 직장에서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제임스 파우스트를 부르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부른 게 당연하지”라고 말할 것이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리 대관장과 그가 대표하는 분을 지지한다는 것을 대관장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으로 나는 감독에 성임되었으며, 그에 의해서 나는 스테이크 부장단에 부름을 받았고, 그는 내가 성인으로서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고상하고 선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요 모범인이 되어 오셨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은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언제나 될 수 있었고 도움을 주셨으며 친절하시고 자상하시며, 내가 얼마나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지니고 있는지도 알고 제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특별한 영감과 지혜를 지닌 분으로 특별한 친구이며 비밀이 없는 벗이 되어 오셨으며 그 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또한 헨리 디 모일 전 부대관장님과 휴 비 브라운 전 부대관장님이 내 생애에 끼친 크신 영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은 지상에 사셨고 또 살고 계신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사람, 나의 선교사 시절의 동반자, 감독단에서 함께 봉사했던 사람,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 친구, 십이사도 지역 대표 여러분들이 내 생애에 허락해 주신 무한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구세주를 따르는 겸손한 종으로서 나는 세상의 구세주인 그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을 머리로 해서 새롭게 확립된 그의 교회의 거룩함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㉞



수 세기에 걸쳐 일부 학자들은 구약전서를 고대의, 기독교 이전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경전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해의 두루마리의 발견과 그 번역으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기독교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에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을 말해주는 구약전서



1973년 5월호

클레온 스카우센 씀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 교수

수 세기에 걸쳐 일부 학자들은 구약전서를 고대의, 기독교 이전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경전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사해의 두루마리의 발견과 그 번역으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기독교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두루마리에는 그리스도 성역 이전에는 없었다고 생각되어온 관념과 교리와 당시에 실제로 행해졌던 사실이 나와 있다. 실제로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밝혀짐에 따라 예수님이 기독교를 처음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몇가지 근거가 밝혀졌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고로부터 인류에게 주셨던 풍부한 종교 문화를 단지 회복하였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구약전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중 어떤 사실도 말일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못되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담에게 가르쳐졌음을 알고 있었다. (모세 6 : 51-68) 그들은 아담이 구세주의 선교와 회개의 교리와, 침수로써의 침례와 성신의 부여의 필요성

을 배웠다는 것을 안다. 더우기 현대 계시는 아담이 성 신권에 성임되었으며 (교성 84 : 16-17)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모세 5 : 59)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완전한 언어로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모세 6 : 5-6)

이러한 거룩한 지식의 놀라운 경문의 결과로 아담은 그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 에녹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 같은 일을 했으며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러했다. 현대 경전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를 간증했음을 밝혀 준다. (야 7 : 11)

다음은 주후 260년부터 340년 경에 살았던 최초의 위대한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한 말이다. 그는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교라고 말하였다 :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은 우리의 종교의 교리와 더불어 최근에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인간을 처음 창조한 때부터 말하자면 고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의 천부의 지식으로 이룩된 것이다...”

“고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지려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을 무엇이 저지하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종교는 새로운 것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며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가장 최초의 것으로 참된 종교란 것이 분명하다” (유세비우스 교회사 4 : 4, 15)

“구약전서가 복음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 그 책의 권위도 올라 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선교와 메시지에 관한 예언과 가르침이 왜 없어졌는지 의문을 금치 못한다. 사해의 두루마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밝혀주었을 때 그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고대 유대 서기관들의 귀에 얼마나 거슬리는 말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예언들은 위대한 메시야가 그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은 당시 국력이 기울어지던 유대 시대에 살며 존경받던 서기관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 그들은 이러한 성구를 없애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소한 예언자 니파이

1. 사해 두루마리 : 사해 근방의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 1947년에 처음으로 우연히 발견됨.

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 (니일 13 : 28-29)

다행히도 그들은 이사야의 위대한 메시아의 장(53장)을 읽었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최초로 오실 일에 관한 모든 기사도 빠뜨렸다. 때로는 책이 전부 없어지기도 했다. 지노스, 지노크, 니움의 귀중한 메시아의 책이 이에 해당한다. (니일 19 : 10)

그러나 복음의 회복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바꾸어 놓았다. 구약의 이야기와 교리의 모든 부분이 풍족히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그리고 성경의 영감역에 나타났다.

이러한 경전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값진 것을 우리에게 제공했다. 이 경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극적으로 종결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전서는 고대의 기독교의 반복된 희망 성취의 역사라는 것을 밝혀 주었다

이 경전들은 또한 주님께서 구약이 현대인들에게 값진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도 나타내 보여 준다. 구약은 구세주의 세상 선교로 성취되어 없어진 육신의 제명의 율법을 다른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우리 시대의 문제에 적절히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구약전서 연구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옛 종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날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가를 알아 내는 것이다.

말일에 관해서 이사야보다 더 많이 기록을 남긴 예언자가 없다. 말일성도들은 그가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인디안 그리고 물론경의 출현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요셉 스미스를 알고 있었다. 그는 뉴욕주 팔마이라의 성스러운 숲에서의 첫 번째 시현에서 있을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교회 초기의 말틴 해리스의 역할이 무엇일 것인가도 알고 있었으며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유명한 고전 학자였던 찰스 안톤 교수의 역할도 익히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말틴 해리스가 물론경의 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안톤 교수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이사야 29)

에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이사야처럼 현대에 관한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요셉 스미스가 그의 자손 중의 하나이며 그의 이름이 요셉이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대의 요셉이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모으며 물론경을 내고 그것을 성경과 합쳐 하나의 경전으로 만드려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젊은 예언자가 그의 사업을 아주 연약할 때에 시작하여 뒤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하고 힘 있는 지도자가 되려란 것도 알고 있었다. (나이3 : 7, 11-21)

고대 축복사 요셉의 글이 모세에게 큰 감명을 주어 모세는 그 글을 창세기 15장에 포함시켰다. 불행히도 어떤 고대의 서기관이 무엄하게도 그것을 뽑아 버렸는데 우리 시대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었다. (성경의 영감역 창세기 50 : 2, 나이 3 : 5-24 참조)

창세기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위대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말일의 요셉의 한 후손에 관한 성스러운 전설을 간직해 왔다. 유대인들이 "Messiah ben Joseph"이라 부르는 이 현대 요셉에 대한 참고 사항은 탈무드나 미드랏쉬나 유대의 타아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스러운 전설에서 보면 말일의 하나님의 종은 에브라임을 통한 요셉의 한 자손으로서 엘리야가 돌아 올 때 (말.4 : 5-6) 그의 일이 시작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다.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조셉 클라우스너 박사가 저술한 책 이스라엘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뉴욕 : 맥밀란 회사 1955)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 책의 제 3부 9장에서는 "Messiah ben Joseph"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 경전에는 이것에 대한 참고 자료가 없어서 이 성전은 철저한 유대 연구서로 발견되어야 했기 때문에 클라우스너 박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만약 클라우스너 박사가 좀더 살았다면 성지에서 경전을 연구하는 물론 학자들을 만났을 것이다. 물론 학자들은 그에게 이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것이며 유대인이 바라던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은 그와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Messiah ben Joseph"은 왔으며 엘리야도 왔다.

말일에 요셉과 엘리야가 온 것은 유대 지파의 새 시대의 여명을 전해 주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두 선각자가 이미 온 것을 모른채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은 말일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고향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리라는 말을 했다. (사 11 : 12 ; 61 : 4 ; 렘 3 : 18 ; 12 : 14-15 ; 30 : 3) 예언자들은 이 땅이 어둡고 고통의 황무지에서 아름답고 풍족한, 비옥한 땅으로 변하리라는 예언을 했다. (사 35 : 1 ; 41 : 19-20 ; 55 : 13)

구약전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립되리라는 예언이 있다. (겔 40-43) 현대의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레위의 아들들을 뽑아(고대로부터 이들은 코헨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의로운 번제"를 제물로 바치도록 했다. (겔 43 : 18-27 ; 44 : 9-

27; 말 3:3)

경전에서서는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온에 대적해 싸우며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멸망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주고 있다. (나이 10:16) 의로운 유대인과 의로운 아랍인과 의로운 이방인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동하여 복천년의 준비 단계로 온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나 복천년이 되기 전에 예언자들은 아마겟돈이라 부르는 가공할 시험이 유대인에게 닥칠 것이다. 이때는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기이며 이사야는 이를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이라 말했다. (사 51:17)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대인들을 치려 할 것이다. 에스겔의 한장(겔 38)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3년 반이 될 것이라고 경전의 여러 곳에 나와 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그들의 백성을 그러한 큰 시련에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두 예언자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신권의 능력을 행사하여 이방인의 무리들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 두 예언자를 죽일 것이다. (레 11:2-7) 예루살렘의 반이 약탈될 것이다. 두 예언자의 시체는 3일 반 동안 거리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습을 나타내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경전은 구세주가 올리브 산에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그 산은 두 쪽으로 갈라져 통로가 생기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들이 이 통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실고 있다. (스 14:2-5; 레 14:1) 동시에 이

방인 군대는 하나님의 권세로 멸하게 되며 그 육분지 일만 남게 될 것이다. (겔 39:1-8)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들레에 모여 그를 찬양할 것이로되 그의 손의 상처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그가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선조가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것을 애통히 여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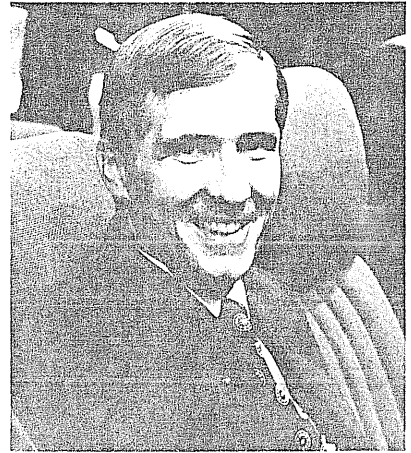
그 순간부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함께 메시아를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고 말할 것이다.

구약전서는 재미있는 책이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몇가지의 보화로운 구절만을 보았을 뿐이다. 이 책 속에는 최근에 시작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의 심오한 뜻을 가진 문제를 실고 왔다.

그 한 예는 범죄와 도적과, 감옥과 전쟁과 기근과 부정과 부절제와 부도덕을 일소할 수 있는 특별한 유형의 문명을 그리고 있다. 그러한 문명을 위한 율법과 원칙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며 실제로 구약 시대에 행사되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지역이나 개인의 권리를 희생함이 없이 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는 이상적인 신권 체제의 본보기를 나타내 보여 주셨다.

오늘날 사회의 제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구약전서에서 취급되지 않은 문제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전서를 현대인을 위해 만들어진 현대의 책이라 부른다. 구약전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말해준다. 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

렉스 디 피네가 회장
칠십일 제일 정원회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 북 캐롤라이나-버지니아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한 선교사가 보낸 편지에 인용한 성구가 생각납니다. 이것은 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내용으로 엘마서 29장 9절과 10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아노니, 그 뜻 안에서 내가 영광롭다. 나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뜻을 영광되게 하느니라. 내가 많은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됨이 나의 영광이리니, 이가 곧 나의 기쁨이라.”

“보라, 많은 나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저희 주 하나님 앞에 나아오심을 볼 때 영육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나니, 그때에 주께서 내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일까지도 기억하느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게 뻗쳐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무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㉔

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의 연구가

레온 알 하트선 글

주 님께서 자신이 믿을 수 있고 그를 신뢰하여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대리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며 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몇년 전에 이같은 말씀을 하신 바로 그분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할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봉사를 통하여 대관장단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분은 없다. 그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교회를 관리하신 그의 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아들이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꾸준하고도 충성스럽던 형 하이람 스미스의 손자이기도 하다.

우리의 현 지도자가 쌓은 방대한 경험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막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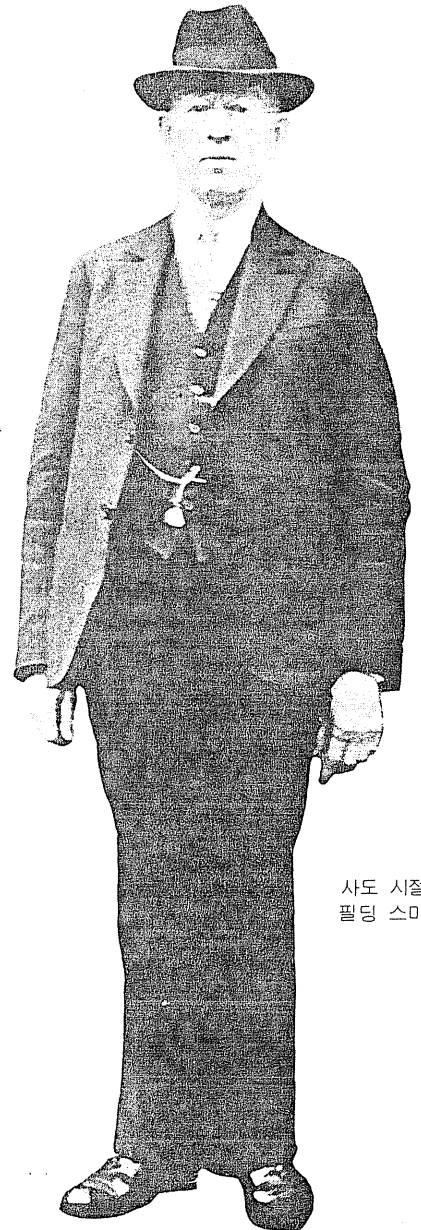
그는 1910년에 33세의 약관으로 십이사도의 부름을 받았으며, 60여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실하게 봉사하였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직의 막중한 책임을 19년 동안 맡아 왔으며, 대관장단에서 보좌로 5년간 봉사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의 그의 놀라운 업적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그가 보인 봉사와 공헌도 교회의 역사를 통털어 볼 때 전출 사람이 별로 없다. 49년간 교회 역사 편찬 위원으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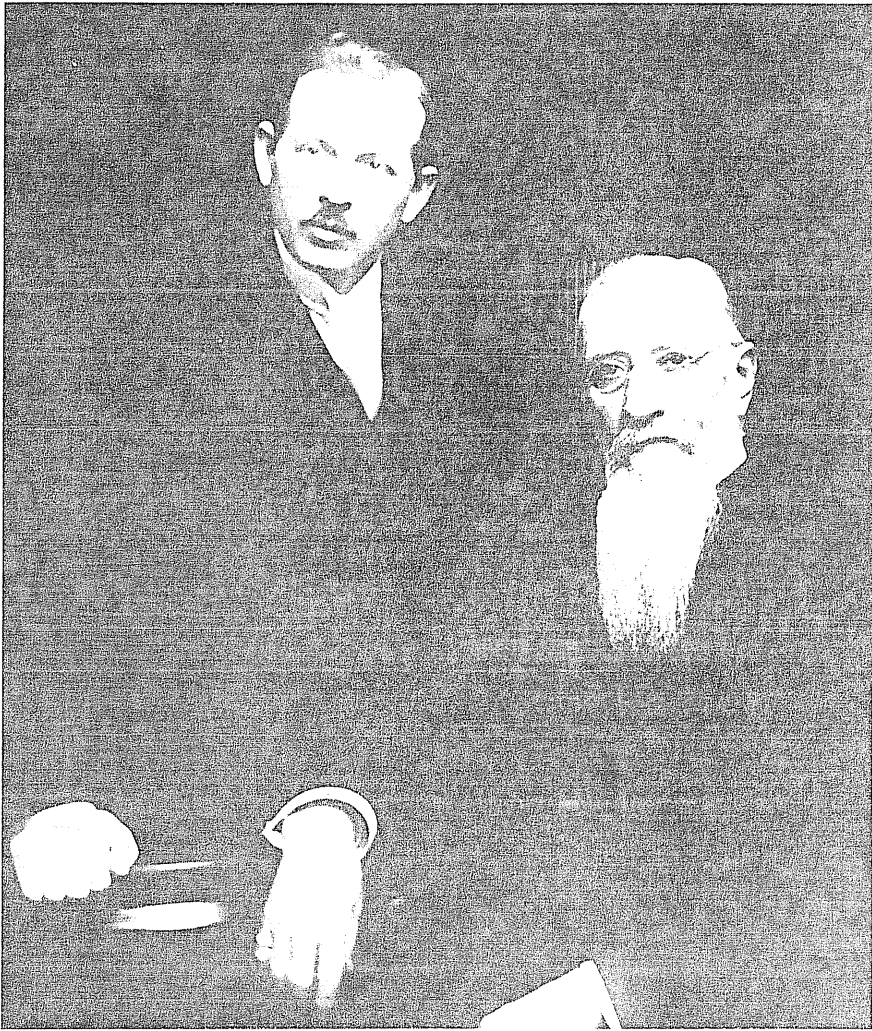
해 왔으며 그의 교회사와 교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교회에 널리 알려졌다. 1901년에 그는 그의 첫 저서인 톱스필드의 아멜 스미스를 출판했다. 1970년에 그의 마지막 저서인 “열심히 구하라”(Seek ye earnestly)를 출판했다. 그 동안에 그는 25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중의 많은 책들은 복음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일상 용어로 저술했다. 그 가운데는 교회 약사, 1922; 완전히 이르는 길 1931; 인간의 진보, 1936;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38; 인간, 그 기원과 운명, 1954; 구원의 교리 3권, 1954-56;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5권, 1957-66, 이 있다.

그는 1876년 7월 19일에 출생했다. 그가 21세가 되던 1898년 4월에 그의 첫 아내인 루이 에밀라 셔트립과 결혼했다. 결혼 일년만에 1899년 5월 12일 그의 아버지에 의해 칠십인으로 성임되었으며 그 다음날로 선교 지역으로 떠났다. 스미스 대관장님의 당시의 개인적인 그러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 처했을 때에 당하는 고통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름을 받아 들여 노팅엄 캠퍼런스에서 2년간 봉사하다가 1901년 6월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즉시 스미스 대관장님은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었다. 계보 협회의 서기로 임명된 1907년 그에게는



사도 시절의 필딩 스미스



하나님의 두 예언자인 아버지와 아들

더 큰 임무가 주어졌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기 2주 전에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의 첫 아내 루이 에틸라를 잃었다. 1908년 11월 2일 그는 에텔 조지나 레이놀즈와 결혼했다. 그녀는 1937년 8월 26일에 사망했다. 첫번째 아내와의 십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두딸을 얻었으며 두번째 아내와의 29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들 다섯과 딸 넷을 가지게 되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1938년 4월 12일 전 콘트라alto 가수이며 태버나클 합창단 독창자였던 제시 이반스 자매와 결혼했다. 친성이 명랑하고 쾌활한 그녀는 대관장님의 곁에서 33년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으로 남편을 받들고 보필하였다.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남편은 대관장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수많은 여행을 했으

며 바쁜 일정을 함께 하였고 많은 나라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만났다. 그녀가 1971년 8월 3일 심장병으로 죽자 수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 대관장님의 고독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다. 이 때에 해롤드 비리 부대관장님이 그에게 보여준 사랑과 걱정을 보시고 스미스 대관장님은 그의 보좌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자기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확언하였다. “나는 이미 이전에 이 일을 마쳤소”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주님의 율법과 원리에 대해 너무도 철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의 순수한 인품으로 보아 어떤 타협도 용인될 수 없었다.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깊이 염려하며 동정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진 특별히 인자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말을 했다. “만약 내가 친구 중의 아무에게서나 심판을 받는다면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서 받겠다.”

1956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감사의 글을 냈는데 그중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우리는 다만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씨와 또 그분이 불행이나 곤경에 빠진 사람들



그는 여러 대학 졸업식에 많이 참석했다.

에 대해 갖는 염려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죄인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분별력을 소유한 분으로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두가지만으로 문제를 압축시켜 생각하십니다. 대관장단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대관장님의 한 아드님께서도 아버지의 인품과 또 스미스 대관장님의 큰 내적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질머지신 시험과 시련과 죄를 알 수만 있다면’이라고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몇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조용한 시간을 깨뜨릴 수가 없어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신전에서 나의 형제들과

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봉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나의 구세주를 사랑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미스 할머니를 모릅니다. 할머니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른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훌륭한 자매였던 나의 아줌마 메리 톰슨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무릎에 앉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누나 에디스를 따라 연살이 될 때까지 몰문경을 두번을 읽었다.

“내가 아직 어려 아픈 신권을 받을

수도 없을 때에 아버지는 나의 손에 몰문경을 쥐어 주시며 그것을 읽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니파이 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나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했다. 그때 나의 마음에 새겨진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지하고 학구적인 성격 외에도 또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유우머를 알았으며 유우머를 자주 그리고 즉흥적으로 사용했다.

한번은 스미스 대관장님이 캘리포니아 대회에서 돌아 오면서 그가 탄 울리브로 도시락 가방을 가득 채운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방면에 취미를 가지신 분이였다.

만나던 지난 목요일에 네가 내옆에 있어 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구나. 네가 그 형제들이 그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고개를 아래로 하셨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려 사쓰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는 머리를 아래로 하신채 앞뒤로 흔드시며 ‘사랑하는 나의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말씀하





두 동생과 함께 있는 어린 조셉 필딩 스미스 모습 (중앙)
(좌) 조지 칼로스
(우) 데이비드 에이



적이 있다. 그는 이 귀한 물건으로 마음이 기뻐했으며 또 항상 남과 나누어 갖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 형제에게 “나무에서 갓 따온 올리브의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조금도 의심치 않은 이 희생자는 그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올리브를 한입 기분 좋게 입에 물었다. 그 씩씩한 맛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형제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왜 그러십니까? 나쁜 것을 씹은 모양이지요. 여기 이것을 한번 먹어 보세요”라고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인품은 그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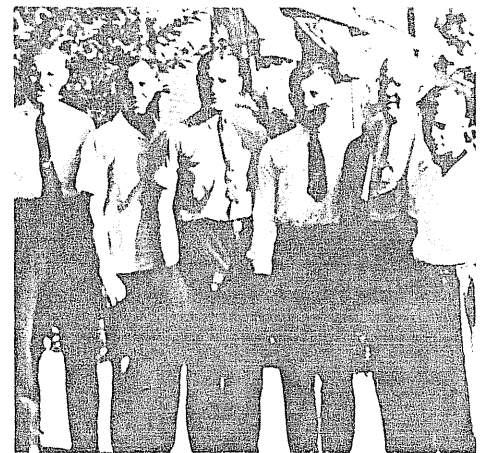
께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잘 알기 쉽다. 1932년에 그의 아내 에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제가 아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였는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지요. 그분이 가신 후에 사람들은 그분을 선량하고 진지하고 정통적이며 등등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구요. 대중이 그분을 알고 있는 바대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과 내가 아는 그분과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아는 그분은 친절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남편이며 아버지입니다. 그가 지닌 이 생애에서의

가장 큰 욕망이라면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 잠재우는 분이시며 어린 것들의 침대 곁에 앉아 옛 이야기를 해주시며, 성장한 아이들이 어려운 학교 숙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밤 늦게까지 혹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도와 주시며 그 일에 조금도 피곤해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가 병이 나면 그를 극진히 돌보며 시중을 드십니다. 아이들은 울때 아버지를 찾으며 어떤 병에 걸렸어도 아버지가 계시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를 묶어주는 손이며 그의 팔은 고통을 겪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팔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부드럽게 타일려서 그

조셉 필딩 스미스 약력 (1876 - 1972)

1876	연령	
7월19일	-	솔트 레이크시에서 6대 대관장의 아들로 출생함.
1896	20	“네 형제들과 함께 권고의 자리에 앉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관리하는 것이 네 의무이니라”라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음. 장로로 성임 받음.
1897	21	루이 에밀라 셔트립과 결혼. 1908년 두 딸을 남기고 사별.
1898	22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함.
1899-1902	22-24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서기가 됨.
1901	25	에델 조지나 레이놀즈와 결혼. 1937년 다섯 아들과 네 딸을 두고 사별.
1908	32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부름 받음.
1910	33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 됨.
1921	44	계보협회 회장이 됨.
1934	57	제시 이만스와 결혼; 1971년에 사별.
1938	61	구주 여행중 2차 대전이 발발하여 독일에 있었음. 구라파 모든 선교사들의 질수를 지시함.
1939	63	솔트 레이크 신전 신전장이 됨.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 됨.
1945	68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보좌로 부름받음.
1951	74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음.
1968	89	95회 생일 보냄. 영국 맨체스터에서 있었던 최초의 대회를 관리함.
1970	93	
1971	95	
1972	95	
7월2일		별세.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와 그의 아들들 1940년



스미스 대관장님의 여러 드레스



들로 하여금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 될 때까지 노력하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가장 상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대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곳이라도 찾아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드립니다. 그분은 젊은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기쁘게 맞아 들입니다. 그들과 세상 일이나 운동 등의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분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미담을 좋아하시며 때와 장소에 따른 유우머를 쓸 줄 아시며 남을 잘 웃기며 또 잘 웃으십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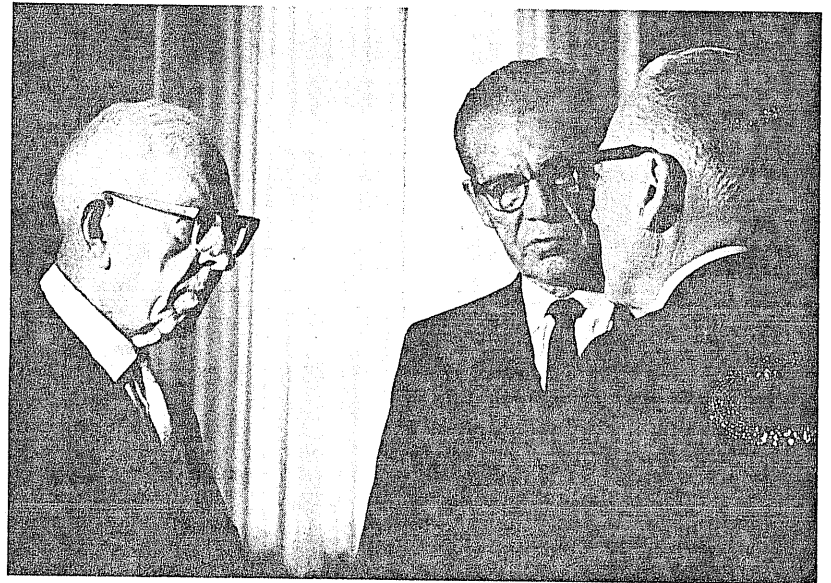
다. 어떤 건전한 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는 그분은 희생적이며 불평이 없으시며, 인정이 있고 생각이 깊으시며,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며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내가 아는 그분이십니다.”

이 여러 사진들은 그분의 성품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는 한 학생으로서 역할 때문에도 가장 오래 기억될 분이다. 그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

“나는 내 전 생애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해 왔으며 주님의 율법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 마음 속에는 그분과,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뜻이 지상에 널리 심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큰 사랑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더욱 공부하고 경전을 읽고 교회에 관한 양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공부하고 사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그 결과로 내 마음 속에는 그분의 사업과 그에 대한 큰 사랑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보좌인 태너 부대관장, 리 부대관장과 함께 서있는 스미스 대관장님의 모습

스미스 대관장님과 2차대전에 전사한 그의 아들 루이스



세가지 약속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보조

나는 꼭 약속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나의 아내에게 약속합니다. 과거 25년 동안 보여 준 것과 같이 나를 계속 지지하여 준다면 나는 내 임무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둘째, 나는 사랑하는 세 자녀인 바바라와 리와 게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신권 지도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영을 받기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리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를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큰 짐을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말일에 조직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는 그러한 간증과 그 간증이 내게 주는 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봉사하려면

오 레스리 스톤 장로

십이사도 보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떨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앉으신 이 형제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이 형제님들은 우리 가정을 방

문하셨고 우리와 함께 지냈으며 그들의 축복을 남겨 주셨습니다.

약 16년 전에 리 대관장님께서 저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됩니다. “스톤 부장님, 해임되는 날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형제님들이 언제든지 나를 해임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분은 이번의 약속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형제님들에게 내가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봉사하며 시간과 정력과 수단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구세주 자신께서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며 당면하게 될 많은 유혹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우리는 가정에서 그러한 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선교부장을 역임한 내 두 아들은 내가 그들의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을 나에게 인용해 주곤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수련 장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다호 블랙프트에서 살던 내 아내를 만났을 때도 나는 수련 장로였습니다. 한 동안 구애를 하고 그녀야 말로 내가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이라는 것을 그백했을 때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내가 더 발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전 결혼 이외의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발전을 거듭한 끝에 나는 장로로 성임될 수 있었고 신전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1924년 4월

23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고 인봉되었습니다. 나는 열 네 명의 손자를 포함해서 나의 영원한 반려자와 가족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를 받은 어제는 내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린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고 구세주를 받들며 살았을 때라는 것을 간증드리면서,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25년 전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곤경에 빠져 들었습니다. 나는 적자 운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했으며, 내가 사업에 성공하도록 영감과 인도로 축복을 내려주시면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시간과 수단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셨으니 이제 나는 리 대관장님, 태너 부대관장님, 롬니 부대관장님, 그리고 여러 형제님들에게 내가 이 새로운 부름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분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던 날 리 대관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내 마음 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나도 가장 좋아하는 성구이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항상 이 말씀을 좇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재능이 있고 부유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응답/피더슨

모든 사람은 생활 가운데 행복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와 욕망을 갖고 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압력과 또 하나님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도 세상적 요구로서의 음식과 옷처럼 만족스럽게 해결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재능이 있게 보일지라도 복음이 그에게 없으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것이 못된다. 행복을 얻으려면 인생의 그 공허함이 채워져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심중을 밖으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요구는 한 개인의 새로운 성장의 경험을 겪게 될 때 표면 가까이에 나타난다. 결혼 후 아기가 탄생한 후, 사회에 큰 변혁이 있는 후,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저들이 평화로운 날에는 나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더니, 환난의 날에는 부득이 나를 찾는도다”(교성 101 : 8)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이르렀을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경전 공부와 기도으로써 준비해야 한다. 그들에게 훌륭한 친구와 이웃이 됨으로써 시작할 수도 있다. 이웃이 여행을 떠났을 때는 그들의 잔디 밭에 물을 주거나 그들이 사랑하는 동물을 돌보아 준다. 빵을 구웠으면 이웃과 나눠 먹는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적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성 64 : 33)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행하든지 겸손과 성실로써 행한다는 것이다. 빈센트 드 폴은 “가난한 자를 넘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는 빵으로 인하여 당신을

증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복음에 귀의케 하는 것은 성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멸과 영생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감으로 받아 말할 수 있도록 영감 받을 수 있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성령에 대한 간증이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기도 안에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한 복음의 원리에 가까워져야 하며 그래서 모범이 되고 의로운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희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 : 88 ; 교성 49 : 27)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셨으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행사할 기회를 마련하고 계신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제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 하나님은 당신의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신다. 또 그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신성함을 증거하고자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인간의 심중과 욕망을 아신다. 당신이 준비하였고 우정을 키워 왔을 때 당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올 것이다. 영감을 받는다면 당신은 성스럽고, 갈망하며, 채우지 못한 인간의 욕망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

많은 예비 선교사들이 그러한 기회를 맞았을 때 논리나 이유로 인하여 실패한다. 그들은 우정을 해칠 어떤 것을 말하거나 마음을 상케 할 것을 두려워 한다. 이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주의를 주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 함이니라”(교성 60 : 2) 우리는 가벼운 일상 대화로써 사람을 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감 받았을 때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것들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한 자의 가슴을 울려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이처럼 복음 안에서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책자나 책들이 많이 있다. 몇 권은 집에다 준비해 두었다가 기회가 있을 때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합당하게 준비되었다면 우리 각자는 복음을 알아 받아 들이는 자들의 마음에 오는 변화와 기쁨을 보면서 해마다 풍성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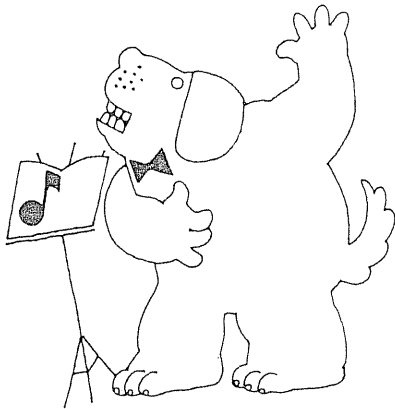
헤셀 피더슨

선교 대표

물론 유우머

프로그램이 의외로 길어지자 두 살 난 딸 아이는 몸을 꼬며 안달이 났다. 나는 가만 있지 않으면 데리고 나가서 불기를 때려 주겠다고 했다. 십 분이 지나자 딸 아이는 킷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 “엄마 데리고 나가서 불기를 때려 주세요.” —보니 슈와브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주일 학교 교사가 반원들에게 죄, 기도, 용서를 구함이라는 내용의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다. 공과를 끝내면서 교사는 한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다. “주님께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기 전에 무얼 해야 합니까?” 그 소녀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죄를 져야죠.”



가정의 밤에서 재능 발표를 하는데 아버지가 여덟 살 난 아들 옆에서 아이올린을 켰다.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개가 신경질적으로 짖어 대었다. 몇 분 동안의 고역을 참다가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야 개가 알지 못하는 곡을 한 곡 연주할 수 없겠니?”

아일랜드 사람 : “벨파스트의 난동에 관한 신문기사를 모두 믿고 게시겠지요. 난 그곳의 훌륭한 직장에서 매우 흥미있는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영국 사람 : “무얼 하시길래요”

아일랜드 사람 : “빵 배달차 뒷문을 지키죠”

그 날 따라 특별히 길어진 성찬식에서 네 살된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지칠 줄 모르는 세번째 연사를 포함해서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지 에스 부루워
유타주 옥든

작가 : “마침내 난 모든 잡지사에서 다 받아 들일 것을 썼지.”

친구 : “그게 뭔데?”

작가 : “일년 구독 신청서지 뭐야.”



어린 신디는 고양이 프란시스가 귀여운 새를 잡아 먹자 몹시 화가 났다. 그녀는 마침내 아주머니 루디에게 이렇게 물었다. “고양이가 새를 잡아 먹으면 새는 바로 천당엘 가요 아니면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루스 더블류 앤드류스
캘리포니아 벨리 센타

의무 :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은 마지 못해 억지로 라도 하고 영원히 자랑하라.

조 스밀리
캘리포니아 노스릿지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다음 주일에는 특별한 공과를 할 예정이니 반원들은 마가복음 17장을 읽어 오라고 숙제를 주었다. 다음 주에 교사는 숙제를 한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반원이 손을 들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군요. 오늘 공과는 마가복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 밖에 없답니다.”

